



# 문화매일신문



제 1558호

2024/4/1 / Mon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사집단행동' 관련 28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방문

'의사 집단행동' 관련 분당서울대병원 방문한 김동연,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의대중원 유감, 전향적으로 대화 임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해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병원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김동연 지사는 "의대 중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있지만 진행 방법이나 절차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된 데에 대해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며 "중앙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으로 대

화에 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을 보이며 대화·타협해야 한다. 타협과 양보에 여지없이 이렇게 소모적으로 흐르는 상황이 유감스럽다"면서 "그런 와중에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역할을 해주시는 의료진에게 도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 경기도가 사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중이다. 특히 도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을 포함한 도내 9개 병원 등에 공중보건의 33명과 군의관 13명을 지원하는 등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2월 24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3월 13일 안양샘병원 등을 각각 방문하며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격려한 바 있다. 김범상/기자

## 전남도, 여수 묘도에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재결음

에코로그 등 5개 기업과 3조9천억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



전라남도는 2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여수 묘도에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5개 기업과 3조 9천200억 원 규모의 기회발전특구(청정수소 클러스터 조성)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투자협약식에는 김영록 지사, 제스퍼하이켄스 에코로그(ECOLOG) 최고사업책임자 등 5개 기업 대표와 정기명 여수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여수 묘도에 청정수소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수소 생산 및 저장·운송,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처분, 청정수소를 활용한 열과 전기 생산까지 이뤄져 전남에 전주기 수소생태계를 구축하게 된다.

클러스터에 투자할 예정인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주)에서 LNG 저장 및 공급 시설을 신설하고, 이를 기화해 수요기업에 제공하고 ▲린데코리아(주)는 LNG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공장을 신설하며 ▲에코로그는 이 과정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액화해 이산화탄소 운반선을 통해 해외 폐가스전에 저장한다.

이렇게 생산된 수소는 ▲묘도열병합발전(주)에서 수소 혼소 LNG열병합발전기에 사용하고 ▲묘도연료전지발전(주)에서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에 사용해 열 및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이를 통해 묘도에 수소 생산, 저장·운송 및 활용까지 수소산업 핵심 생태계가 조성돼 여수·광양 국가산단의 탈탄소 전환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전후방 산업 집적화에 따

라 기업별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투자할 예정인 기업 가운데 린데코리아는 세계적 산업용 가스 제조 회사다. 에코로그는 글로벌 해운 회사로서 이산화탄소 수집 및 운반에 특화된 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기업이다. 이들 기업 유치를 성공함에 따라 클러스터 조성 이후 성공적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이번 협약으로 수소산업 전주기 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향후 지역의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분야에서 한발 앞서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여수·광양 수소배관망 구축, 광양 수소도시 조성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클러스터가 조성될 묘도에는 기반시설이 우수한 산업용지도 갖추고 있어 향후 첨단·신성장 관련 기업 투자유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종배/기자

전남도는 묘도 청정수소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광양만권 수소 융복합 플랫폼 구축 등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계기를 마련하고, 도내 대학, 기업, 연구기관과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술개발 지원과 연구 및 전문기술 인력 양성에 나설 계획이다. 또 묘도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과감한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투자협약으로 전남에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가 조성돼 미래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기대한다"며 "광양만권이 수소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기반시설 구축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 협약을 했던 린데코리아(주)와 2020년 5월 투자사들과 협약을 한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주)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예전 협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협약을 다시 했다.

## 교육비 부담에 힘겨워하는 근로자들의 주름에 햇살을 비추다

4월 1일~4월 30일간 '2024년 경상북도 근로자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근로자 생활안정지원으로 근로의욕 고취와 생산성 향상 기대

경상북도는 4월 1일부터 도내 거주하는 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2024년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2003년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면서 출범한 사업이다.

도는 그동안 몇 번의 정비와 지난해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자격 요건과 지원 금액 부분을 손질했다.

우선, 자격 요건은 '중소기업'으로 한정된 근로자에서 전체 근로자로 대폭 확대했다.

지원 금액은 고등학생 생활비를 기존 1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학생은 기존 등록금 150만원 지원에서 생활비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1년에 250만원을 지원한다.

그 결과 신청자 수가 개정 전(2022

년)에 비해 224%(214명→479명)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고, 대학생 지원자 수 기준으로도 149%(57명→85명) 증가를 기록해 경기 침체와 높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생계 불안에 시달리는 도내 근로자의 가계 생활 안정에 이바지한 것으로 보인다.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는 지원 대상자 모집은 도내 22개 시군 기업·노동 부서 및 학자금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등을 통해 접수한다.

관련 신청 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및 22개 시군,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근로 문의 사항은 '2024년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운영 사무국'(☎ 053-952-1236)에 연락하여 해결이 가능하다. 윤근수/기자



이번 학자금 신청 시 유의할 점은 근로자 가구당 자녀 1명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과 불가피한 사유로 지원받은 학자금을 반환하려고 할 때는 전액 반납만 허용된다.

경상북도 최영숙 경제산업국장은 "도내 근로자의 안정적인 가계 생활 유지를 위해 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가정에 근로자 자녀 학자금이 신속히 지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부산 도시브랜드 굿즈 디자인 공모전' 개최

수상작에 부산광역시장상 및 총 1500만원 규모 상금 등 특전제공

부산시와 부산디자인진흥원이 부산 도시브랜드를 활용,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가치를 담은 굿즈 디자인 발굴을 위해 아이디어를 모은다.

부산디자인진흥원(DCB, 원장 강필현)은 29일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도시브랜드를 널리 알릴 우수한 제품의 굿즈 디자인을 발굴하기 위해 '부산 도시브랜드 굿즈(상품)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부산의 새로운 도시브랜드의 심벌마크와 브랜드슬로건(부산이즈굿)을 활용해 삶의 질이 높은 '시민행복도시', 문화·비즈니스·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글로벌 허브도시' 등 부산의 가치를 담은 굿즈를 개발·발굴하기 위해 진행된다.

부산시와 진흥원은 공모전을 통해 개발된 굿즈를 부산 도시브랜드를 홍보하는데 활용하는 한편 오는 8월 중 개관하는 (가칭)'부산 브랜드샵' 입점 기회도 부여할 예정이다. 수상작에게는 부산광역시장상 및 부산디자인진흥원장상과 함께 총 1500만원 규모의 상금도 수여한다.

공모분야는 부산 도시브랜드를 활용한 생활소품, 패션잡화, 액세서리, 어린이상품, 문구, 사무용품, 공예품 등 굿즈 제품이다. 우리나라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사업체' 혹은 수상작 선정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절차진행이 가능한 '개인'이라면 응모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개인 혹은 사업자는 5월 16일 오후 6시까지 아시아디자인 플랫폼 내 개설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견본 3D렌더링 등 목업(실물크기 모형) 이미지와 함께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팀당 2중 이내로 제출가능하며 세트상품이나 컬러별 제품군의 경우에는 1종의 굿즈로 인정된다.

심사평가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상품가치성 및 지역성·독창성 ▲기능성 및 효율성 ▲보편타당성 ▲소비자의 기호 등을 기준으로 1차 비대면 심사와 2차 실물심사로 이뤄지며 최종 심사결과는 6월 중 부산광역시 및 부산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강필현 부산디자인진흥원 원장은 "브랜드가 곧 도시의 경쟁력이 되는 '도시브랜드의 시대'를 맞아 부산의 도시경쟁력 및 국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해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며 "굿즈(goods)를 통해 부산 도시브랜드의 가치(good)를 이해하고 부산에 대한 애착(goodness)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 공모전을 통해 발굴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디자인진흥원은 지난해 3월 도시브랜드 및 슬로건 '부산이즈굿' 발표 이후 민·학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부산 도시브랜드 민관 네트워크'를 통해 도시브랜드를 활용한 굿즈

제작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도시브랜드의 신속한 확산 및 브랜드 가치의 안정적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김희태/기자



2024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2024 Cheongsando Slow Walking Festival

기  
치  
유  
가  
필  
요  
해  
청  
산  
도  
를  
느  
려  
보  
라

2024. 4. 6.(토) ~ 21.(일)  
완도군 청산면 일원

주최 완도군 주관 청산도슬로걷기축제추진위원회

# 이복조 시의원, 2024년 '글로벌크라운 대상' 지방자치 분야 수상

## '부산시의 복지사각지대 감소를 향한 사회적 약자에 복지 서비스 기여' 공로로 수상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글로벌크라운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 분야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의원은 지난 2023년 316회 임시회에서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부모에 대한 관심 촉구를 위한 5분자유발언을 시작으로 「부산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청소년 부모에 대한 실태조사와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이끌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였다.

'대한민국 글로벌크라운대상'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한민국 혁신 성장동력 가치를 인정받은 정치, 지방자치, 국제, 경영, 경제, 사회, 환경, 교육, 문화, 소상공인 분야에서 국회의원, 교수, 지방자치 단체장, 지방자치회의의원, 기업대표 등에게 수여한다.

한편,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2023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부산시의회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전세사기피해 대응 패키지 입법" 6개 중에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수상에 이바지 한 바 있다.

김희태/기자



# 충남도의회, 합리적 재정관리 제언을 위한 재정보론회 개최

## 충남도 출자·출연기관 사업 및 출연금 효과적 운영 위한 개선방향 논의



충남도의회는 29일 천안 신라스테이에서 합리적 재정관리 방향 제시를 위한 '2024년 재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진혁 충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장(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이 좌장을 맡고, 이은경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장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김대중 한국지방재정경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 부연구위원, 정창훈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최웅선 충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은경 과장은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사업 및 출연금 운영 개선 과제'를 주제로, 출연금 예산 지원의 적정성 및 정산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과장은 "적정 수준의 예산

편성이 가장 중요하고 출연기관의 여유 자원 분석 및 수지차 방식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며 "선진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제안과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 실시하는 정산 절차의 방향성과 개선안에 대한 전문적 분석 및 질의답변과 함께 참여자 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활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충남도의 출자·출연기관 사업 및 출연금의 합리적·효과적인 재정진단과 재정관리 운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정근/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존 지역민이 행복해야 동반이주율 높아진다"

## 임철규 의원, 29일 5회째 '우주항공 인프라 협의체' 토론회 개최

5월 27일 사천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지난해 2월 발족해 5회째를 맞은 '우주항공청 설립 및 인프라 지원 협의체'의 역할이 커졌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통과('24.1.9.) 후 처음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이전보다 훨씬 구체화되고 열기를 띠었다.

우주항공청 이주인력에 대한 파격적인 정주여건 개선책도 제시됐지만, 한편으로는 기존 지역민이 박탈감을 느끼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도시 전체를 부흥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모두 동의했다.

임철규(국민의힘·사천1)은 29일 사천에 있는 경남TP 항공우주본부에서 5차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신상준 KAI 미래전략실장은 "원래 살던 사람이 행복해야 이주할 사람도 '살기 좋다'는 인상을 갖는다"며 "사천 토박이거나 앞서이주한 사람, 기업이 박탈감을 느끼 않도록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숙미 사천시 우주항공과장은 발제를 통해 우주항공청 이주가구를 위한 29개 시책을 소개했다.

△관리비만 내는 아파트 단계 입주 △리우정착 지원금 1인당 200만원 △양육지원금 0부터 7세까지 1인당 50만 원 △전·입학 장려금 1인당 150만 원 △주택 임차 시 대출이자 납부액의 90% 지원 △월세 매월 30만 원 지원 △가족 취업·창업 지원금 △부부공무원 인사교류 지원 등이다.

이 과장은 "이 시책에 모두 200억 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이를 위해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모든 가용 에너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특별법 통과 때처럼 지역의 목소리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되, 대승



적인 차원에서 지역별 연계성도 높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여문 도 우주항공산업과장은 "인프라 구축은 결국 국가의 계획 안에 들어가야 실현 가능하다. 지역 정치인과 행정이 하나가 되어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정부에서 봤을 때는 사천과 진주는 하나의 지역이므로 상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길은 사천공항 공항장은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공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로 공항을 짓자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공항을 확장하거나 증편하는 것은 정부에서 봤을 때 불가능한 방안이 아니다"며 "선거가 끝나고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진용이 갖춰지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으로, 이같은 경남의 우주항공 복합도시에 대한 청사진을 서둘러 외부에 알리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조현진 경남연구원 박사는 "채용이 시작됐지만 국내외 흩어진 전문가들은 아직 잘 모르고 있고, 부정적인 여론도 많다"면서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원하는 정보를 미리미리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연구자들은 오히려 한적하고 조용한 곳을 선호할 수 있다. 흔히 듣는 유사한 정책보다는 사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친환경적, 시대와 젊은 취향에 맞는 차별적인 매력점을 홍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예술 인프라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이창남 한국예총 사천시지회 회장은 "개청과 더불어 사천지역 문화에 솔게도 움직이고 있다."

사천시 계획을 보면 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언급이 많은데, 공연이나 전시와 같이 콘텐츠를 채우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고, 장기적으로

장재현/기자

# 울산시의회, 의정활동 지원역량 강화 현장워크숍

## 정책지원관 등 직원 30여명 29일 경북도의회 방문, 활동 공유·협력 모색

울산광역시의회가 29일 정책지원관과 사무처 직원들을 경북 안동의 경상북도의회로 보내 도의회 사무처 운영상황을 둘러보고 의정활동 지원 상황 등을 공유하는 현장워크숍을 실시했다. 시의회 정책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의회사무처 소속 정책지원관 11명 전원과 전문위원실 직원 등 3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워크숍 참가자들은 경북도의회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 등을 만나 지방의회 정책지원 현황을 청취하고, 정책지원관의 역할 및 전문위원실과의 협력방안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서 안동시 도산면의 도산의원과 전문위원실 직원 등 30여명이 참가했다.

울산시의회는 이번 행사가 시의회의 정책지원 역량 향상과 의정활동 아이디어 발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은 "의회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실 직원간 실무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의원들의 의정역량이 한 단계 높아진다"며 "직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참석을 독려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 워크숍은 간부 공무원이 아닌 주무관

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율적인 분위기에 지방자치 현장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워크숍에 참가한 성낙선 정책지원관도 "사무실을 벗어나 지원관과 전문위원실 직원끼리 의정활동 지원 방법에 대해 진솔한 의견을 나누고, 다른 광역의회 실무자와 소통하는 좋은 기회였다."며 현장에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폭넓은 의회 정책지원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행된 제도로 의원 정원의 1/2까지 들 수 있다. 울산시의회에서는 지난해부터 11명의 정책지원관이 활동하며 의원들의 정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황규진/기자

#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장,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 예배 '참석'

## 2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주관 예배서 "현실을 희망으로 바꾸는 노력 지속, 안전 사회 조성 위해 최선" 다짐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장이 29일 단원구 초지동 4.16생명안전공원 부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0주기, 열 번째 십자가' 예배에 참석해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주최한 이번 예배는 부활절을 맞아 시대의 고난현장을 찾아 기도하고 한국교회의 선교 과제를 찾는다는 취지로 개최됐다.

이날 송바우나 의장은 인사말에서 "은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다"며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통해 소중한 가족, 친구, 동료들을 잃는 슬픔과 고통을 겪었고, 또 멀게만 느껴졌던 재난과 안전 문제에 대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곳 4.16생명안전공원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추모하고, 기억하며 다시는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다짐하는 희망과 약속의 공간이 될 것"이라며 "고난과 죽음

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이 모두에게 희망을 주었듯, 모두의 연대와 사랑의 실천으로 지금의 현실을 희망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도와 실천으로 이웃의 어려움에 함께해 주신 성도 여러분과 참사의 고통을 뒤로하고 우리 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안산시의회 또한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소중히 하고,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예배에는 송바우나 의장 외에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위원들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 안산지역 목회자 등이 참석했으며, 예배는 침묵기도와 특송, '2024 고난주간 고난의 현장 그리스도인 공동의 다짐', 인사말, 다짐의 찬송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최정부/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대표이사: 박영민·최수진·권정국·최재은. 청소년책임보호자: 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 02.2612.2959	경 제 부: 내선 (114)	문 화 부: 내선 (116)
광고국: 1899.9659	소 르 부: 내선 (115)	부 동 산 부: 내선 (117)
		오 키 니 언 부: 내선 (118)
		지 방 부: 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합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웃음꽃 피어나는 시정 ” 신세대 스타일! 조현일 경산시장의 얘기를 듣다



조현일 시장은 늘상 활동하기 편한 관련 캐주얼 복, 운동화 차림의 신세대 스타일의 모습을 느끼게 해 준다. 그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각오로 현장 정치로 시민들과 소통함으로써 누구든 그를 대하면 단박에 호감을 느끼게 한다. 이처럼, 소통의 철학을 갖춘 조 시장은 1965년 생으로 경산시에서 태어나 경산초·중·대통고, 계명대, 영남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기업인 출신 정치인으로 도의원을 통해 경북도와 시청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맡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산시장에 도전. 민선 8기 경산시장에 당선된 입지전적 인물이다.

이에 취재진은 특유의 친화력과 강한 추진력으로 '꽃피다 시민중심 행복경산'을 슬로건으로 ▲살고 싶은 도시 환경 ▲일자리 중심 미래경제 ▲사람중심 교육문화 ▲지켜주 주는 행복복지 ▲시민중심 적극행정 구현을 위해 항상 겸손한 마음과 낮은 자세로 '시민속'에 답이 있다'는 각오로 직접 민생현장을 방문해 직접 눈으로 보고, 현지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을 섬기는 섬김의 철학을 바탕으로 이를 직접 해결해 실행에 옮기는 소통의 정치를 펼쳐오고 있는 조 시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경산시정에 대한 큰 그림을 들여다 봤다.



문화매일신문 지사장 : 안녕하십니까? 문화매일신문의 윤근수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봤는데, 시장님에 대한 평판이 좋더군요, 특히 시장님은 소탈하신 분이라 마주 대화하면 친형, 친동생, 오빠 같은 분이다보니 시장과의 만남은 격격이 없이 편하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오늘 이렇게 뵈고 보니 그림이 명불허전이란 생각을 느끼게 합니다. 먼저 경산시민여러분들과 저희 신문 독자분들께 인사 말씀 해 주시죠.

조현일 경산시장 : 안녕하십니까? 경산시장 조현일입니다. 아낌없이 사랑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문화매일신문 독자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는 시민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섬기는 섬김의 철학으로 경산시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십시오.

감사 합니다.(이하 Q : 문화매일 영남지사장 윤근수, A : 조현일 경산시장 인터뷰 내용, 존칭은 생략)

Q : 시장님의 경산 시정 정치 철학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A : 민선 8기 대표 핵심기조는 "시민소통"이다. 취임 후, 낮은 자세로 시민들 작은 목소리도 소홀하지 않았다. 특히 농업인, 소상공인, 대학생 등 다양한 소통간담회를 실시해 온 결과, 기업인들의 수차례 간담회에서 나온 애로사항을 해결했고, 이중에 경산산업 단지의 대동맥 역할을 하는 경부고속도로 경산나들목 상승 정체구간인 대구방향 진입로를 지난해 12월,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 늘어나는 인적·물적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 했다는 평가를 받아 가슴 뿌듯하다. 진랑IC 하이패스 설치 도 빠른 시일내 해결하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토크콘서트 형식을 도입한 '청'책토론회는 각계각층 시민들을 모시고 앞으로의 시정 방향을 공유하고, 시정에 아쉬운 점과 바라는 점을 가감없이 나누는 기회가 돼,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께 다가갈 계획이다.

Q : 어느덧 출범 1년 8개월이 흘렀다. 경산시장으로서 지난 기간 동안의 성과에 말씀해 달라.

A : 민선 8기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지방소멸 극복이란 과제를 안고 출범해 취임후 2년 가까이 민생회복과 새로운 초석을 놓기 위해 혼신을 다해, 인구 30만 자족도시 기를 마련이란 성과를 이뤘고, 시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 했다. 시를 대한민국 ICT벤처 창업의 허브로 만들 임당유니콘파크를 착공,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의 요람인 42경산이노베이션아카데미도 열었으며,

먼, 전기가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지정, 미래차 신산업 핵심 기술도 선점했다.

시민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 환경 분야도 진전돼, 경부고속도로 경산IC 진입로 확장, KTX 경산역 정차 확대, 경산정수장 고도정수 처리 시설로 깨끗한 물 공급, 남천을 자연생태 하천으로 복원 경산의 랜드마크로 만드는 중이다. 시정도 소통 중심으로 바뀌, 각계각층의 분야별 소통간담회와 시민에게 듣고 정책에 담아내는 '청'책토론회를 시정에 반영했다.

Q : 경산시의 미래형 모빌리티, 메타버스 플랫폼 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달라.

A : 4차 산업혁명시대는 필연으로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기업은 물론 도시의 운명이 걸린다. 시가 ICT에 주목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모바일, 웨어러블

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이기 때문이다. 시는 비수도권 최대 ICT벤처창업 중심도시로 성장키위해 대구지하철 2호선 임당역 부근에 '임당 유니콘파크'를 총사업비 995억 원을 투입,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21,702㎡ 규모로 2026년 완공 예정으로 지난해 12월 첫 삽을 뜬다. 이것이

조성되면 120여 개 기업의 입주 공간과 다양한 기업의 편의시설 제공할 뿐 아니라, 기업과 연구기관이 입주할 수 있는 ICT 벤처창업 벨리 조성을 기업 성장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스타트업 발굴·성장·지원까지, 벤처창업을 대표하는 ICT 벤처창업의 성지로 자리매김 하도록 지역 청년 정주 여건 개선과 규제 개혁, 투자생태계와 창업문화



구축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창업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은 ICT 산업 발전의 필수 불가결한 과제이다. 시는 소프트웨어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 7월 프랑스 예콜42 본사에서 42경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계약을 체결, 11월 대구대학교에 문을 열었다. 예콜42는 프랑스 파리의 세계적 IT교육기관이다. 예콜42의 교육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는 42경산이노베이션아카데미는 전 세계 50번째, 국내는 서울에 이어 두 번째이며 매년 200명의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양성 한다. 2년 비학위 과정으로 교수·교재·학비 없는 3無교육으로 진행되며, 선발된 학생들은 기존 교육시스템을 벗어나 교육생들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단계적인 과제 수행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의 실무 역량을 체득할 수 있게 운영되고 있어 지방에서 최초로 도입한 혁신적 교육프로그램인 만큼 반드시 안착시켜 지역혁신의 성공 사례를 만들겠다. 아울러 임당유니콘파크와 연계해 경산이 대한민국의 ICT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 이제 몇 개월 후면 집권 반이 끝난다. 집권후반기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해 달라.

A : 신년사에서 올해를 시민과의 '약속 실행의 해'로 삼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린 바 있다. 따라서 올해는 추진 중인 사업들을 구체화해서 성과가 나타나도록 집중할 계획이다.

임당 유니콘파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42경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본 궤도에 올려 선순환 구조의 틀을 만들며, 2024 CES에서 경산의 벤처기업 리플라가 혁신상 2개 부문을 수상했다. 제2, 제3의 리플라 같은 벤처기업이 계속 나오도록 기업하기 좋은 경산을 만들겠다. 1만호 공공주택지구인 대입지구 조성, 임당유전적 시간 건물, 문화관광재단 설립, 중추고속도로, 대구도시철도 1, 2호선 순환선과 3호선 연장 등 시민 편의 위한 교통망을 확충하겠다.

민선8기 후반기는 전반기 성과를 토대로 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무엇보다 스스로 빛나는 항성도시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 행복과 경산의 미래 도약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경북 제3의 도시 품격과 위상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해 뛰겠다.

Q : 경산 시민, 시정 직원 및 각계각층 간의 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달라.

A : 1300여명의 공직자들과 함께 항상 열린 사고로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먼저 MZ세대인 젊은 직원들 차담회를 통해, 근무간 애로점, 건의사항, 모범 사례 등 시정발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업무 처리에 있어서는 모든 직원이 열린 마음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의견을 소신있게 표현하는 등 직원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시민들 의견을 반영하고자 분야별 소통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선제적 대응 위한 사회복지시설장 간담회, 농정 분야 민생현장 간담회,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상공인 민생현장 간담회 및 상공의원 간담회 등을 실시했다. ▲또한 시는 13개 대학 10만 청년이 머무는 대학 도시로 각 부서에 흩어져 처리하는 대학 관련 업무를 한 곳에서 총괄하기 위해 대학팀을 신설, 대학 추진 각종 공모사업, 대학 협력에 관한 사항, 특히 대학총장들 간의 상호 소통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대학발전협의회를 개최,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이외, 대학 현안문제 시정 반영을 위해 총학생회장과의 간담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Q : 인구 감소는 심각한 지역소멸 위기이다. 시의 인구증가책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달라.

A : 저출생 원인은 어느 지방자치단체 하나에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유로 꼭 짚어서 말할 수 없다. ▲



최우선 과제는 청년 일자리와 주거이다. 시에서는 일과 휴식이 있고, 원하는 내일이 약속돼, 청년들이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 경산을 만들어. 청년들이 꿈인 벤처창업 인프라를 만들고, 임당 역세권 인근에 1만호 규모의 대입지구를 조성해, 청년들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 편의 시설 확충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다음은 돌봄과 양육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해 경산형 완전무결돌봄 정책인 '우리

아이 CARE 프로젝트'를 추진, 원하는 시간 언제 어디서나 믿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양육 친화도시를 만들고, 또 지난 2월부터 전국 최초 고향사랑기금을 활용, 소아·청소년 야간진료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든든하고 총총한 양육, 돌봄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저출생은 국가소멸의 경계등으로 국가 차원에서 주거, 일자리, 교육, 문화 등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Q : 아직 이른 감이 있지만, 지금의 시정을 본다면 다음 재선에 더 큰 무리가 없을 듯하데...

A : 시장을 맡으면서 시민들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을 쫓아 다녔다. 그 모습을 시민 분들께서 좋게 봐 주신 것 같다. 아직 재선운운은 아닌 단계이다. 오직, 시장으로서 시민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가슴 설레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경산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

Q : 끝으로 경산시민들에게 당부 말씀이 있다면 해 달라.

A : 어려움 속에서도 삶의 현장을 곳곳까지 지키며, 시정에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시민여러분의 도움으로 시 발전의 초석이 될 일들을 해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지금 구상한 계획과 정책들을 구체화, 달라진 경산의 위상을 증명해 보이겠다. 오직 시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가겠다. 유지경성(有志竟成), 이루고자 하는 게 있으면 반드시 이룬다는 금언을 가슴에 새기고 더 열심히 뛰겠다. 초심을 잃지 않고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 보내 주시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산시장과의 인터뷰가 끝났다. 조 시장을 취재하면서 가슴깊이 와닿는 것은 "일의 성공은 예하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요, 일의 실패에 대한 책임은 시장인 자신이 져야 한다"는 '참된 리더십'이었다. 이를 보면서 왜 경산시가 최고의 시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게 해줘, 취재진은 경산시가 꿈꾸는 일이 완벽하게 실현돼, 경산시민 모두가 '레지나칭칭나네'를 노래 부르는 '행복 가득 기쁨두배'의 시로 힘차게 나아가길 기원해 본다.

윤근수/기자



#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 안전한 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한 병의원 의료 업무 협약 체결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사회복지법인 웰컴복지재단)는 3월 29일 첫 운영 개시를 앞두고, 지난 3월 28일 신속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관내 6개 의료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이용 중인 아동이 센터 내에서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부모 동의 없이도 부모 대신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안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약했다.

이번 의료협약을 맺은 이천시 관내 병의원으로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관고동), 바른병원(중리동), 2개의 병원과 드림키즈소아청소년과의원(창



전동), 명소아과의원(부발읍), 한&김 소아청소년과(부발읍), 박소아청소년과의원(장호원) 의원급 4개소로 총 6개소다.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사업은 이천시가 민선8기 공약사업 중

하나로 아이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돌봄이 필요한 부모들에게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자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틈새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장(김지수)은 "관내 의료협약 병의원들과 소통과 협력을 통해 책임 돌봄 실현에 직접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천시는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도시를 만들어 나가면서 이천시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열려" GTX-A 개통 축하

## 29일 서울 수서역에서 열린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기념식 참석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시장)이 29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기념식에 참석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가 열린 것을 축하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 시간을 30분 안팎으로 앞당길 첫 GTX 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GTX 개통으로 지역 간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이 실현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구성역은 지하 40m 이상 깊은 공간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암반이 발견돼 부득이 개통 시기가 6월로 늦춰졌는데 구성역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행하겠다"고 했다.

GTX-A 수서~동탄 구간 열차 운행 시간은 새벽 5시 반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다. 수서에서 동탄까지 소요 시간은 19분이다.

GTX-A 수서~동탄의 구간 요금은 기본요금 3200원에 10km를 초과할 때 5km 단위로 250원씩 추가된다. 수서~구성(21-6km) 구간은 3950원이다.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도가 적용돼 다른 노선과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다.

GTX-A 노선은 경기도 파주시 운

김범상/기자



# 여주시, 시민과 공무원은 문자메시지로 소통한다.

## 여주시, "양방향 문자 전송서비스" 도입해 민원업무 효율화

여주시가 공직자와 시민이 문자메시지로 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문자 전송 서비스"를 도입했다.

기존에 여주시는 시민들에게 발송했던 문자메시지는 수신자(시민)가 답변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없었지만, 최근 여주시가 구축한 "양방향 문자 전송 서비스"는 여주시가 시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시민은 메시지를 확인한 후 문자로 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여주시는 행정전화에서 양방향 문자 전송서비스가 가능하며, 주

민들은 각종 민원(사전첨부), 지방세, 세외수입, 농업인 수당 양식 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하나의 예로 기존에는 읍면동 이동장회의 참석여부를 이동장들에게 일일이 전화하여 확인했지만, 양방향 문자전송 시스템이 도입되고나서는 이동장들이 참석여부만 문자로 회신하면 담당공무원은 한눈에 참석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올라갔다.

여주시청 관계자는 양방향 문자 전송서비스 시행으로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져 업무처리도 빨라지고, 주민들의 생활에서 편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방향 문자 전송서비스가 필요한 행정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 광주시, 제18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 개최

## 여주시, "양방향 문자 전송서비스" 도입해 민원업무 효율화

광주시는 29일 광주시 노인복지관에서 '제18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광주시 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방세환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을 비롯해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및 종사자, 자원봉사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이 사회복지사 선서문을 낭독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한 12명의 사회복지사가 표창을

받았다.

또한, 2026~2027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광주시 유치에 사회복지사들도 함께 지원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광주시 사회복지사협회 김길수 회장은 "제18회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이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사랑과 봉사를 실천해 주는 사회복지사에게 감사드린다"며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과 인권 보장 등 사회복지사의 위상 개선을 위한 제도개

선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 시장은 축하사를 통해 "사회복지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사회복지사의 헌신과 노력이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사의 날은 2007년 4월 22일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와 한국 사회복지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2011년 3월 30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원 향상을 위한 법률' 통과를 기념하기 위해 2012년부터 3월 30일로 변경해 올해로 18회를 맞았다.

김범상/기자

# 안양시, 4월부터 온라인 여권접수 사전예약제 운영

## 시 홈페이지저희화~목 오전 9~12시 예약 가능...목요일 저녁 8시까지 접수 가능

안양시는 시민들이 여권을 더욱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4월부터 '온라인 여권접수 사전 예약제'를 다시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지난해 여권 수요 급증으로 일시 중단된 바 있다.

시는 시민들의 여권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서비스를 올해 4월 2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예약은 안양시 홈페이지 내 '온라인 여권접수' 메뉴에서 가능하며,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만 예약을 받는다.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기 없이 바로 온라인 예약 창구로 안내된다. 시는 야간 민원실도 운영한다. 매주

목요일(공휴일·명절연휴 전·날·12월 31일 제외)에는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여권 접수, 6시부터 8시 40분까지 여권 교부를 진행한다.

또 여권발급 신청서에 인쇄된 QR코드를 인식하거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대기인원 수와 순번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만 18세 이상 성인이라면 정부통합전산망 '정부24'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온라인 예약제 재시행으로 과거 대기시간 지연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 이재준 수원시장, "성인페스티벌 행사 강행하면 행정대집행도 불사하겠다"

## 「성인 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 개최 수원시, 성인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 개최



이재준 수원시장은 "성인페스티벌 행사를 강행하면 행정대집행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성인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를 주재한 이재준 시장은 "오늘(3월 29일)

성인페스티벌 개최 예정 장소인 수원메세에 행사 취소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며 "주최 측이 행사를 취소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행정대집행으로 행사 개최를 저지하겠다"고 천명했다.

또 "법망을 피해 피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행사를 개최할 수 없도록 조례 제정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에 관련 법의 개정을 촉구할 것"이라며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성인페스티벌 행사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5만 명 이상 동의해야 국회 소관위원회, 관련위원회에 회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법이 신속하게 개정돼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분이 청원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성인콘텐츠 제작업체는 4월 20~21일 민간 전시장인 수원메세에서 성인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행사가 열리는 수원메세는 서평초등학교와 직선거리로 50m도 떨어져 있지 않아 학부모들과 시민 단체들은 '행사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 3월 21일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수원시민'이라고 밝힌 작성자가 "유사 성매매와 다른

없는 행사가 열리는 수원메세에서 불과 반경 50m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다"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성을 둔 주고 사거나 팔 수 있는 걸로 취급하는 행사가 열리지 않게 국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29일 15시 현재 2만 1200여 명이 청원에 동의했고, 4월 20일까지 5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김선경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재광 수원서부경찰서장, 서평초등학교 학부모회장, 수원서부초등·중등 학부모폴리스연합회장, 시민단체, 이종충 수원남부소방서장, 수원시의회 이대선·김소진 의원,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성인 페스티벌을 개최를 저지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 김동연 지사, GTX A노선 수서~동탄 개통에 앞서 동탄역 현장 점검

30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GTX A노선 동탄역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김 지사는 더(The) 경기패스가 GTX에 적용되는 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며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15년 전에 경기도가 제안한 게 이렇게 큰 결실을 맺게 돼 경기도민과 함께 지사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안전하게 도민들에게 좋은 교통 시설을 제공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5월부터 경기도가 The 경기패스라는 새로운 교통 할인 카드를 적용하는데 GTX까지 할인해 주는 유일한 카드”라며 “일반 시민은 20%, 청년은 30% 그리고 저소득층분들은 53%까지 할인 혜택을 받는 할인 카드이기 때문에 경기도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GTX는 2009년 4월 경기도와 대한교통학회가 GTX 3개 노선 추진을 국토교통부에 최초 제안한 바 있다. 이후 같은해 8월 예비타당성조사 완

료를, 2012년 동탄정거장 착공에 이어 2017년 사업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30일 오전 5시 30분 첫 운행을 앞두고 있다.

GTX A노선은 동탄~수서~삼성~파주까지 85.5km로 총사업비는 5조 7천421억 원이다. 이 중 30일 개통하는 수서~동탄 구간은 수서, 성남, 용인(6월부터 정차), 동탄역으로 이뤄졌다. GTX A노선 중 파주~서울역은 올해 말 개통하며, 나머지 전 구간 개통은 2028년이 목표다.

GTX A노선 개통에 따라 버스로 79분, 승용차로 45분 소요되던 수서~동탄이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는 GTX A노선 이용 시민의 편의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광미숙 의원, “고양시가 포트홀 정비로 도로환경 개선해야”



경기도의회 광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이 29일 고양상담소에서 시가 포트홀 정비로 도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양시 덕양구는 어제(28일) 보도자로 배포를 통해 도로 파임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차량 통행량 많거나 노후화된 호국로·통일로 구간을 중심으로 일제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지역민원 해결에 힘을 모으고 있는 고양상담소에도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등 포트홀 민원이 접수돼 시가 시공이 지연되고 있다. 덕양구 관계자는 “작년 겨울 잦은 눈과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해 도로가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며 도로 곳곳에 포트홀이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고양특례시와 인접한 인천광역시 의 경우 지난 26일, 올해 1월부터 이달 13일까지 5,582건의 포트홀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건수 3,410건과 비교해 63.6% 증가한 수치다. 이에 광 의원은 “고양시의 상황도 인천과 마찬가지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트홀은 차량 타이어, 휠, 하체 등을 파손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 2차

사고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는 점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광 의원은 “포트홀 정비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세심한 업무 집행과 지역주민의 민원 신고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다시 한번 말했다.

광미숙 의원은 “우리 생활에 예고 없이 발생하는 포트홀은 도로 위의 지뢰로 불릴 정도로 운전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라며 “특히, 어두운 저녁 시간에 도로 파임을 피하기 위해 갑작스레 핸들을 틀거나, 피한 이후 발생하는 사고도 적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광 의원은 “덕양구가 호국로·통일로 구간을 중심으로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일산동구·일산서구 등 시가 관리하는 관내 도로망 재정비와 포트홀 예방을 위해 공직자들께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광 의원은 “포트홀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께서는 피해 증빙 자료와 함께 지자체에 영조물 배상 신청을 하면, 확인을 거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며 “앞으로도 지역 생활민원 해소와 주민권익 향상을 위해 고양시 출신 재선 도의원으로서는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해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소통·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 고양 화정동 ‘도시계획시설[소로3-641호선]사업 공사완료’ 환영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29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 덕양구 화정1동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소로3-641호선] 사업 공사완료’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같은 날 ‘고양시 공고 제2024-

863호’를 통해 도로계획시설[소로3-641호선(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674-38번지 일원)] 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사실을 알린다고 전했다.

공고에 따르면, 사업 위치는 화정동 674-38번지가 시점, 화정동 1028-2번지가 종점이며, 국지도로 기능 수행을 위해 폭 4.5m, 길이 25m가 연장되는 등 면적은 129.6㎡로 환산된다.

시 관계자는 “화정 단독주택단지

국도 39호선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을 통해 차량 혼잡을 개선하는 게 주된 사업 목적”이라며 “공사가 신속 추진돼 기존 올해 12월 말에서 3월 말 준공으로 당겨졌다”고 설명했다.

정동혁 의원은 “도시계획시설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도로개설 공사 완료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편의 증대에 기여한 고양시 공직자와 관련된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호국로에서 명지병원 방향을 통해 도로가 신규 개설되면서 진입이 더욱 수월해진 상황”

이라며 “다가구주택 등 인근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주민과 공원, 병원 등을 이용하는 분들에게서 더욱 편리하고 쾌적하게 다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소통·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경기도 관광테마골목에 ‘고양 구제거리 선정’ 환영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29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 관광테마골목에 ‘고양 구제거리’가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는 같은 날 공식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고양 구제거리, 양주 광사동, 파주 통일촌 등이 ‘2024년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향후 3곳을 생활관광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고양 구제거리는 이번 발표로 1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도 관계자는 “일산동구 식사동에 위치한 구제거리는 판매 중인 옷과 소품들을 활용해 관광체험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며 “앞으로 여러 교육과 활동가 양성, 홍보 콘텐츠 생산 등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상원 의원은 “시군마다 특색있는 골목을 발굴하고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으로 관광명소를 육성하는 등 방문객 확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사업으로 보인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경기도 관광테마골목에 고양 구제거리가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이 의원은 “이번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경기도·경기관광공사·지역협의체 등 유기적인 소통구조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며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소통·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고양시 초·중·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위해 앞장설 것”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29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 초·중·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학생들의 교육권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어제(2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2024학년도 지역별 과밀학급 현황’을 발표하며 초·중·고 과밀학급 2,881개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감소 사유로 ‘초·중·고 학급편성기준 하향으로 과밀학급 감소와 학급당 학생 수 감소의 성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전했다.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

양시 초등학교 기준 ▲2023학년도 전체학급수 2,120개, 과밀학급수가 174개(8.2%)로 나타났으나, ▲2024학년도엔 전체학급수 2,158개, 과밀학급수 0개(0%)로 완전히 해소됐다. 경기도 31개 시군 합계는 ▲2023학년도 전체학급수 30,658개, 과밀학급수 3,373개(11%)에서 ▲2024학년도 31,277개, 과밀학급수 866개(2.8%)로 줄었다.

고양시 중학교 기준 ▲2023학년도 전체학급수 1,021개, 과밀학급수가 375개(36.7%)로 나타났으나, ▲2024학년도엔 전체학급수 1,023개, 과밀학급수 237개(23.2%)로 나타나 13% 넘게 줄어들었다. 경기

도 31개 시군 합계는 ▲2023학년도 전체학급수 12,994개, 과밀학급수 8,531개(65.7%)에서 ▲2024학년도 13,235개, 과밀학급수 7,793개(58.9%)로 줄었다.

고양시 고등학교 기준 ▲2023학년도 전체학급수 1,128개, 과밀학급수가 55개(4.9%)로 나타났으나, ▲2024학년도엔 전체학급수 1,141개, 과밀학급수 21개(1.8%)로 나타나 약 3%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반면, 경기도 31개 시군 합계는 ▲2023학년도 전체학급수 13,473개, 과밀학급수 4,249개(31.5%)에서 ▲2024학년도 전체학급수 13,570개, 과밀학급수 4,613개(34%)로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고양시와 상반되는 수치를 나타냈다.

변재석 의원은 “경기도 내 시·군 상황에 따라 과밀학급 비율이 적잖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특례시인 고양·수원·용인의 2024학년도 고교 과밀학급수를 비교했을 때, 고양은 1,141개 중 21개(1.8%), 수원은 1,374개 중 195개(14.2%), 용인은 979개 중 85개(8.6%)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이어 변 의원은 “고양이 수원·용인에 비해 과밀학급 비율이 상당히 낮은 수치로 나오고 있으며, 중학교로 비교하면 격차가 더욱 큰 상황”이라며 “도시·인구의 팽창과도 연관된 사안이지만, 이를 진단해보면 도시의 안정화와 과밀학급수 해소를 위한 노력이 이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변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성을 고려한 과밀학급 해소를 학생들의 교육권 강화와 쾌적한 공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소통·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2024년 청소년유해환경 예방활동 민·관 합동 캠페인 관련 진행사항 보고 받아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2024년 청소년유해환경 예방활동 민·관 합동 캠페인 관련 진행사항을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청소년유해환경감감사단은 청소년보호법 제5조 및 제48조에 의거, 청소년연도·보호와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고발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날 관계자들은 “도내 청소년유해환경감감사단 57개 단체 중 시군 자체 심사 기준에 따라 지정 또는 공모 선정된 22개 단체가 지역 내 청소년유해환경 감시, 계도·점검 등 청소년 보호활동

에 참여하게 된다.”라며 “청소년의 달(5월), 여름휴가철(7~8월), 가을학기(9~10월), 수능전후(11~12월)로 가두행진, 홍보물 배포, 음주·흡연예방 등 민·관합동 계도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보고했다.

이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정윤경 의원은 “우리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며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광역협의회·도의회가 함께 캠페인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김범상/기자



# 경상북도 소방기술경연대회 '화재감식달인' 선발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27일, 울진군에 소재한 실물 화재 실험장에서 2024년 경상북도 화재조사 분야 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일곱 번째 개최하는 화재조사 선수 선발대회는 실제 화재 현장을 재현한 후 발화 원인과 화재 진행 패턴을 조사해 화재조사서를 작성하는 대회다. 이날 경연대회에는 도내 화재조사관 42명이 참가, 고령소방서 원종호, 김유림 화재조사관이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감식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원종호, 김유림 화재조사관은 6월에

있을 전국대회에 경상북도 대표로 출전한다. 특히, 경북소방본부는 지난 2월 제주도에 개최된 2024년 국제화재감식 콘퍼런스에서 최우수상을 거두는 등 전국 최고 수준 경쟁이 펼쳐졌다. 박근오 소방본부장은 "앞으로도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명확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전문 요원을 꾸준히 양성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화재조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경주시, 경북도 청렴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수상

## 청렴도 개선 및 감사활동에 우수한 평가받아

경주시가 경북도 주관 '2023년 시·군 청렴 및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9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북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번 평가는 반부패 청렴활동 및 자체감사활동 2개 분야 8개 항목(19개 지표)에 대해 평가했다. 그 결과 경주시는 청렴도 개선을 위한 노력 및 자체감사 사후관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경주시는 △시장 주관 클린 청렴메시지 전파 △20:30대 공무원들의 시선으로 갑질 조직문화 개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청렴주니어보드 운영 △민임직에서 시장의 감시 기능을 담당하는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평이다. 뿐만 아니라 업무 전반에 대한 자체 감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사전예방 중심의 사전컨설팅 감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적사항은 중점감사 사항으로 지정해 전체부서에 사전 예고함으로써 자체감사 실시 전에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청렴시책을 추진해 청렴 문화 정착에 앞장 서 왔다. 김대학 경주시 청렴감사관은 "청렴하고 공정한 감사행정을 위한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더욱 청렴한 행정서비스와 내실있는 자체감사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청렴도시 경주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 상주시 '제79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개최

##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도 함께 가져 시민 참여 유도 -

### 강영석 상주시장,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명, 한식이 있는 4월은 산발 발생이 가장 높은 시기, 산불 예방 활동에도 시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해

상주시는 봄철 나무심기 기간 및 제79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지난 28일 상주시 남산근린공원 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읍·면·동 단위 및 시민 단체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국 6천 본을 식재했다. 평소 상주시민이 많이 찾는 남산근린공원에서 시민들이 직접 수국 정원을 조성함으로써 7-8월 수국이 만발하는 시기에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시는 반려나무 갖기 캠페인 일환으로 왕대추나무, 감나무 1천여 그루의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도 함께 가져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한편, 강영석 상주시장은 "올해 141헥타르의 산림에 상수리나무 등의 내화수종과 경제수종 및 산림소득수종 등 다양한 조림을 실시하여 산불 등 재해에 강한 산림은 물론 산림순환경영 실

현으로 산주들의 소득 창출과 나아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탄소 흡수원 확보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목일을 전후한 청명, 한식이 있는 4월은 연중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이므로 산불 예방 활동에도 전 행정력을 쏟고 있는 만큼 산불방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김동현/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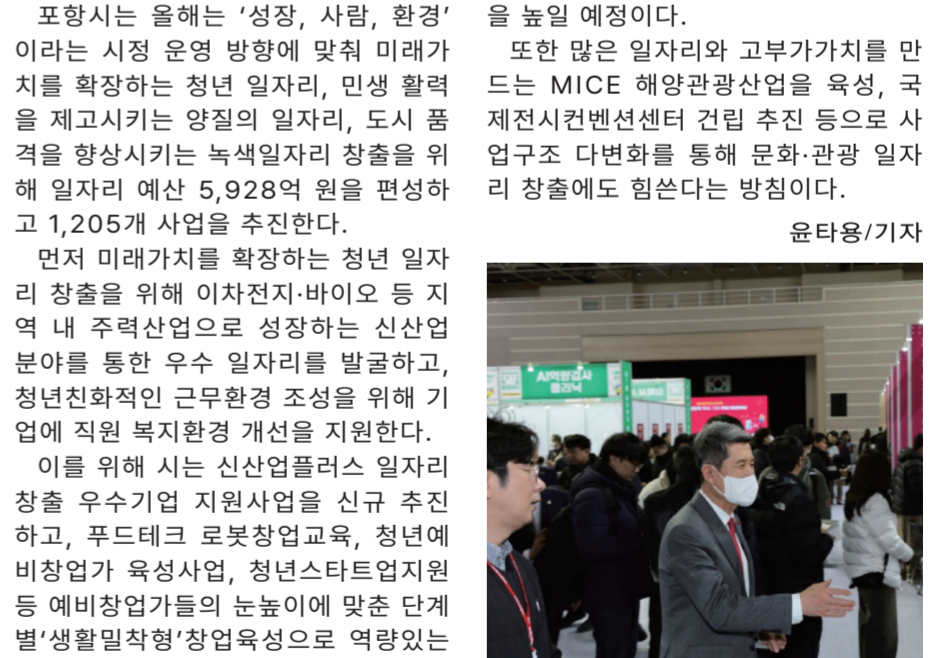


# 포항시, 지역경제 활력 위해 올해 일자리 3만 3,200개 만든다!

## 이강덕 시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민생경제활력 도시 견인하겠다"

시는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지속가능한 도시 포항을 비전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3만 3,2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2024 일자리 대책 세부 계획'을 29일 공시했다.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주요 고용 지표에 따르면 포항 지역 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0.4%p 상승한 59.2%였고, 청년 고용률은 1.5%p 상승한 40.3%, 실업률은 0.5%p 감소한 2.6%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역대 최고 투자유치 성과 달성, 신산업 분야의 발전과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정책 추진 등으로 목표했던 일자리 3만 2,500개를 600여 개 초과한 3만 3,109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보였다. 포항시는 올해는 '성장, 사람, 환경'이라는 시정 운영 방향에 맞춰 미래가치를 확장하는 청년 일자리, 민생 활력을 제고시키는 양질의 일자리, 도시 품격을 향상시키는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예산 5,928억 원을 편성하고 1,205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미래가치를 확장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차전지·바이오 등 지역 내 주력산업으로 성장하는 신산업 분야를 통한 우수 일자리를 발굴하고, 청년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에 직원 복지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신산업플러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푸드테크 로봇창업교육, 청년예비창업가 육성사업, 청년스타트업지원 등 예비창업가들의 눈높이에 맞춘 단계별 '생활밀착형' 창업육성으로 역량있는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민생 활력을 제고시키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시는 일자리 공감페이,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지원으로 지역경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일자리종합센터, 자투리시간거래소, 취업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고용지원 인프라를 통해 민생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그린웨이, 녹색도시 완성을 위해 도심하천 복원 및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지역특화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많은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만드는 MICE 해양관광산업을 육성,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추진 등으로 사업구조 다변화를 통해 문화·관광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는다는 방침이다. 윤태용/기자



#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건설 마중물 통영시 스마트도시 조성 본격화

스마트시티는 도시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 재개발 등 외형적인 투자를 통한 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사물 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융복합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교통, 환경, 의료 등 도시생활 전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운영 모델이다.



2020년 이후 통영시는 도시문제 진단을 위해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한 전문가 의견, 주민협의체 리빙랩 운영, 다양한 계층의 시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민 요구사항과 기존 도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고, 도출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부처 공모사업과 경남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교통관련 스마트 솔루션을 통영시 전역 구축해 나가고 있다. ▲바쁜 일상, 고속도로는 하이패스 주차장은 주차패스 여행을 거거나 업무상 출장을 가는 운전자의 최대 고민은 목적지에 도착해서 '어디에 주차할 것인가'라 할 수 있다. 통영을 방문하는 운전자는 이런 고민에서 자유롭다. 통영으로 출발 전 주차장을 검색하면 스마트 주차공유 서비스가 도입된 무전공영주차장 등 11개 주차장의 현재 주차가 가능한 주차면수, 주차요금현황 등을 실시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전용 APP를 다운받아 회원가입을 하거나, 몇 단계의 보안 인증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민간 카카오톡 서비스에 등록된 돼 있으면 입차부터 출차까지 번거로운 결제 없이 주차패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횡단보도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스마트폰을 손에 쥐는 순간, 주변은 사라진다. 오후라면 스모빅족(스마트폰+좀비 합성어)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을지. 시는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요즘, 스마트폰 사용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중심으로 스마트 횡단보도 서비스를 구축했다. 기존 보행자 신호와 연동한 바닥신호 등은 스마트폰에 집중한 아이들에게 직

관적으로 보행신호상태를 보여주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인도 경계석을 넘어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음성안내 보조시스템이 경고 방송을 송출, 보행자가 안전한 인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유도,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스마트 기능은 기본, 디자인은 옵션, 처음 경험하는 스마트 셀터 서비스 단순한 사각 프레임에 유리벽과 벤치가 덩그러니 놓여있던 버스정류장이 대부분이었던 열악한 환경을 개선,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성을 개선한 것이 무엇보다 반갑다. 통영시는 깨끗한 공기질, 안전과 편의, 스마트 환경 등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정류장을 만들어 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실시간 버스정보를 디스플레이는 물론 음성으로 안내해 버스 셀터의 기본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승객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CCTV는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관제한다. 또한 실내외 공기질 측정센서를 통해 미세먼지 정보제공과 실내 공기질 악화 시 공기청정기가 자동 가동돼 언제나 깨끗한 공기질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상 편의도 고려했다. 스마트 테이블은 스마트폰 무선충전기능을 제공하고 와이파이, 냉난방기 시스템은 물론 냉온열의자 기능도 갖추고 있다. 버스 셀터 외부에 설치된 디스플레이에 승객 대기 유무를 버스 운전자에게 직관적으로 알려줘 시내버스 무정차 문제를 해결했다. 통영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구축 사업은 교통관련 도시문제 해결을 시작으로 도시정보 관리, 환경, 보건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전국 어느 도시보다 스마트한 도시로 탈바꿈해나갈 계획이다. 스마트 버스셀터 구축 현황을 찾은 통영시 통영시장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얘기를 나누고 서비스를 직접 체험한 후 "약속의 땅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 건설을 위해 다양한 스마트 솔루션 도입을 통해 시민들의 삶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용준/기자

# 의성군, 봉양농공단지 환경조성사업 통합패키지 공모 선정

## 김주수 의성군수, "이번 사업을 통해 의성의 관문인 봉양농공단지 청년이찾아오는 활력과 행복이 넘치는 농공단지로 도약하기를 바란다"고 전해

의성군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농공단지 환경조성사업 통합패키지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본 사업은 농공단지의 구조도화 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여 복합문화시설 등을 집적화함으로써 농공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이 찾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은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1994년에 준공되어 올해로 30년

을 넘긴 봉양농공단지를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국도비 47억 원 등 총 60.2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산업기반을 새롭게 탈바꿈할 계획이다. 봉양농공단지는 그간 열악한 정주 여건에도 불구하고 24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꾸준한 경영활동으로 지역경제의 일익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 기반 시설의 노후화와 청년 근로자 근무 기피 등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성장세가 하락하

고 있어 반등을 위한 동력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이었다. 군은 이러한 봉양농공단지를 개선하기 위해 입주기업인, 근로자, 주민 특히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수요를 파악하여 청년문화센터를 새로이 건립하고, 센터 내 근로자 식당, 무인매장, 키즈카페 등 편의공간과 헬스장, 멀티미디어홀 등 문화공간, 공유오피스, 기업컨설팅룸 등 기업지원 시설을 마련한다.

아울러 노후 공장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개선을 지원하여 청년 근로자가 일하고 싶은 공간 조성으로 의성군의 관문에 위치한 봉양농공단지가 청년과 함께 의성군의 산업경쟁력을 이끌어 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22년에 선정된 의성농공단지 패키지 공모사업 추진으로 동부권 산업기반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로 단일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건립



을 통해 서부권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의성군, 이번 봉양농공단지 환경조성사업 통합패키지 공모 선정을 통해 동부와 서부를 잇는 중심권의 산업기반을 새롭게 조성해 의성군 전역의 산업기반 체질을 개선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한때 농촌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농공단지가 청년이 사라지고 경기 침체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의성의 관문인 봉양농공단지가 청년이 찾아오는 활력과 행복이 넘치는 농공단지로 도약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 일과 휴가, 경북 위케이션 '일쉼동체'로 함께 누리자!



### 호텔 및 지역특색을 살린 한옥, 독채스테이, 카라반, 논밭뷰 등 다양한 상품 구성

경상북도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2024년 경상북도 위케이션 상품 '일쉼동체' 사업을 추진한다.

위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직장인이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제도를 말한다.

위케이션 문화가 확산되면서 기업에는 새로운 복지 모델로, 지역에는 생활인구를 유인하는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6월 위케이션 상품을 출시하고 LG전자, 야놀자 등 기업 임직원 및 프리랜서 2,260여 명이 이용하는 성과를 올렸다.

2024년 사업 2차 연도를 맞아 빌딩 숲이 아닌 고즈넉한 경북에서 일과 쉼

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호텔, 한옥, 독채스테이, 게스트하우스, 카라반 등 지역의 다양한 숙박 시설과 공유오피스를 결합한 상품을 마련하고 경북이 위케이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할 예정이다.

경상북도가 위케이션으로 매력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조직 워크샵, 협업, 프로젝트 수행, 직원 포상 등 위케이션 목적에 맞춰 업무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과 공유오피스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누구나 여행하고 싶어 하는 경주 황리단길, 드라마와 사극 촬영지와 힐링 여행지인 안동·문경,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된 스페이스워크와 동해바다가 있는 포항, 레트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의성 등

업무 후 지역의 다채로운 관광지를 통해 휴식,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한다.

더불어 경주, 포항, 안동의 KTX를 통해 수도권에서도 대중교통으로 편하게 방문할 수 있다.

혜택 또한 다양하게 마련했다. 위케이션 상품 구입 시 숙박, 공유오피스와 함께 웰컴키트, 체험프로그램, 여행자보험, 교통비(최대 3만원)를 지원한다.

홍보도 다양하게 진행한다. 28일 개최되는 '내나라 여행박람회'에서 위케이션 특별관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특히, 3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위케이션 콘퍼런스에서 기업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경북 위케이션을 설명하고 적극 홍보 할 계획이다.

윤근수/기자

# '낙동가족과 함께하는 교육소통의 날' 2024년 1학기 학교교육설명회/학부모 총회 개최

낙동동부초등학교는 지난 27일(수), 본교 영어실에서 2024학년도 1학기 학교교육설명회 및 학부모 총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2024학년도 낙동동부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학부모에게 공유하며 교육공동체로서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였다.

1학기 학교교육설명회는 2024학년도 낙동동부초등학교 교직원소개를 시작으로, 학교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감염병 예방교육 등 학부모 대상 교육을 실시하였다. 본교 이정옥 교장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신장하며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는 낙동동부교육을 만들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임을 학부모들에게 전달하였다.

설명회와 함께 실시한 학교교육설명회 및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들은 학교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궁금증과 학생들의 교육에 관한 희망사항을 말하는 자리를 가지며, 학교 교원과 학부모들의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날 학교교육설명회에 참석한 김○○ 학부모(4학년 김○○ 아버지)

지는 "낙동동부교육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학부모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겠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이번 교육 설명회는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 간의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앞으로도 낙동동부초등학교는 이와 같은 교육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학습과 발전의 길을 걸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김동현/기자



# 「2024년 부산광역시 기능경기대회」 개최

### 박형준 시장, "각자의 분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수한 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시는 이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해

부산시는 부산시기능경기위원회(위원장 박형준)가 오는 4월 1일부터 5일까지 부산시체육관 등 8개 경기장에서 부산시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기계, 금속·수송, 전기·전자분과 등 7개 분과에서 폴리메카닉스, 용접, 배관, 공업전자기기 등 총 47개 직종의 경기가 진행되며, 316명의 선수가 참가해 실력을 겨룬다.

50여 년 동안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69세의 최고령 선수부터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선수들이 메달 획득을 위해 경쟁하며, 특히 같은 직종에서 50여 년 선·후배가 만나기도 해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대회에 입상한 선수에게는 메달과 상금이 수여되며, 오는 8월 24일부터 경상북도에서 개최되는 제59회 전국기능대회에 시 대표선수로 참가할 자격도 부여된다.

아울러, 대회 기간 부산시체육관에서 선수들의 경기 외에도 경기장에 방문하는 관람객을 위해 다양한 체험행사도 진행된다. 대한민국명장회 부산지회 등 숙련단체들이 함께하는 전문문화체

험, 아이론·헤어커트, 네일아트, 커피체험, 딸기생크림케이크, 자장면 시연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기능경기위원회(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051-330-190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 대회의 개최식은 오는 4월 1일 10시,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박형준 시장, 하윤수 시 교육감, 김준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을 비롯해 부산지역 주요 인사와 참가선수, 기술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신승식 시 기능경기위원회 운영위원장은 "기능경기대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기능인재 양성의 장으로, 세계로 뻗어나갈 우리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는 대회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대회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박형준 시장은 "숙련기술인들은 우리 부산의 경제산업 발전을 이끄는 주역이다"라며, "각자의 분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수한 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시는 이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 명품남구를 위한 새봄맞이 합동환경정비

대구 남구는 주민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새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관내 청소취약지 집중 정비활동을 실시하였다.

남구 녹색환경과는 지난 3월 27일 오전 10시 30분 대명북개로 16 일원(대명10동)에서 새봄을 맞아 집중 환경정비 활동을 펼쳐 각종 폐기물이 무단으로 방치되어 주민들이 크게 불편함을 겪던 지역의 골목길에 방치되고 있던 쓰레기(10톤), 페타이어(90개) 등을 건설과와 합

동하여 수거하였으며 무단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대대적인 환경정비 및 대청소 활동을 실시하였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새봄을 맞이하여, 방치된 쓰레기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취약지를 찾아가 대대적인 집중 환경정비를 실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정비를 통해 깨끗한 행복도시, 클린 명품남구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동현/기자



# '대구교통공사 & 대구 동구·서구 가족센터' 취약계층 법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다문화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무 지원

대구교통공사는 지난 26일(화), 27일(수) 동구가족센터, 서구가족센터와 '취약계층 법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공사는 이번 협약으로 ▶이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등 형사사건 발생 시 송무업무 지원 ▶다문화 및 한부모 가정에 대한 폭력, 모욕 행위 등에 대한 법

률조력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사건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가족센터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공사 법률고문이 매 주 월요일 유선·대면·이메일 등으로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양 기관은 앞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의 올바른 가족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공사는 지난 '22년도에 수성구 가족센터와 법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금까지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시 소장 작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임시조치 신청 등 총 31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다문화 가정 등 사회 취약계층의 법률적인 지원과 권리를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대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알려주세요!' 봉화군, 지방세 고지서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홍보 나서

봉화군이 지방세 고지서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매월 발송되는 자동차세, 취득세 등 고지서 앞면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알려주세요!'라는 문구와 '희망복지 지원단' 연락처를 노출해 주변의 복지위기가구 제보를 독려하고 있다.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주변 이웃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고지서를 수령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를 홍보하고,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해 주위에 있는 취약가구 보호와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민기 재정과장은 "고지서를 활용한 홍보가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

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지방세도 납기를 놓치지 말고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봉화군은 매년 10만여 건의 지방세 고지서를 활용해 봉화어족제 등 지역축제와 행사, 고향사랑기부제, 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차세 신청 등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을 홍보해 오고 있다.

윤근수/기자



# 영덕생활문화 활성화 다함께 이야기해요

### - 2024영덕생활문화공론장 <영덕끄덕> 성료

(재)영덕문화관광재단은 영덕생활문화공론장 <영덕끄덕> 올해 첫 회의를 지난 29일(금), 저녁 6시 30분 영덕새마을금고 3층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영덕생활문화공론장 <영덕끄덕>은 영덕의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동호회, 문화활동가 등이 모여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펼치는 자리이다. 지난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한 '2023영덕생활 흥한참견'으로 시작하여 작년까지 총 10회 진행되었다. 올해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영덕군의 지원을 받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금요일 저녁 시간에 열린 공론장은 2024년 첫 회의인 만큼 현재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거나 문화생활에 열정을 가진 주민들이 대거 참여해서 열기를 더했다. 영덕문화관광재단은 진행중이거나 예정인 사업을 설명했고 참여 주민들은 지역의 생활 문화가 보다 더 활성화되기 위해 어떤 현실적 방안이 필요인지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올해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문화 활동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연말 어워드를 신설했다. 이번 공론장에서 연말 어워드의 시상내역과 선정 과정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논의도 중



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영덕문화관광재단은 2024년 첫 공론장 <영덕끄덕>에서 도출된 생생한 의견들을 취합해서 영덕이 처한 지역소멸위기에 대처하고 더 나은 생활문화를 만들기 위한 해결 방안을 공유하며, 재단의 주민 대상 문화사업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영덕끄덕>에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영덕생활문화공간'의 현판식도 함께 진행됐다. 영덕새마을금고의 협조를 얻어 마련된 '영덕생활문화공간'은 영덕 주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생활문화동호회의 연습실, 문화강좌 강의실, 회의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 현재 영덕새마을금고 지하와 3층 공간이 새롭게 리모

델링을 마치고 주민들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3층에는 전면 거울과 바닥 매트를 설치해서 댄스 수업이나 연습, 움직임이 있는 활동이 가능하고 지하는 약기 연습실도 적합하다. (음량이 과한 악기는 제외).

영덕생활문화공간은 영덕 주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주요 검색창에서 '영덕생활문화공간' (<https://ydcctspace.modoo.at/>)을 검색하거나 '영덕 문화 관광 재단' 홈페이지 (<https://ydcct.org/>) 사이드 메뉴버튼에서 영덕생활문화공간 클릭하면 예약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다.

장문화/기자



# 저출생과 전쟁을 승리로 이끌 늘봄학교 자원봉사자 모집

## 자원봉사 일괄 모집으로 효율성 증대 및 돌봄 문제 해결로 저출생과의 전쟁 승리

경상북도는 2023년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늘봄학교 자원봉사자를 시군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일괄 모집한다.

도는 그동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올해 2학기부터는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초등학교가 기존 180개에서 468개로 확대 될 예정이어서, 모집을 자원봉사센터로 단일화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늘봄학교 자원봉사에 관심 있는 도민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결격사유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이다. 자원봉사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시군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서를 내려받은 뒤 희망학교를 작성해 시군자원봉사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

면 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이메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제출된 신청서는 시군자원봉사센터에서 모아 희망하는 늘봄학교로 보내지고, 늘봄학교는 가장 적합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개별통보한다.

늘봄학교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나 대표연락처로 문의해 보면 알 수 있다.

김호기 경상북도 새마을봉사과장은 "이번 자원봉사자 모집에 많은 사람이 신청해 늘봄학교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늘봄학교도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상북도의 저출생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 예천군, 제79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가져

예천도효자공원에 영산홍, 자산홍 등 식재

김학동 예천군수, "안천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영산홍 식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민들이 일상의 여유를 즐길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겠다"고 밝히

예천군은 지난 29일, 예천도효자공원에서 제79회 식목일 맞이 나무심기 행사를 실시했다. 행사에는 예천군수 및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영산홍, 자산홍 등 관목 10,000본을 식재했다.

예천도효자공원은 한천 둔치에 위치해 주민들이 매우 즐겨 찾는 곳으로 나무심기를 통해 도효자공원과 한천수변공원을 찾는 주민들에게 더 큰 볼거리와 즐거움을 제공하게 됐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한천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영산홍 식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민들이 일상의 여유를 즐길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김선일/기자

# 청송군,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 4월 1일부터 신청·접수, 올해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 윤경희 청송군수, "임업직불금 신청기간에 유의, 관내 임업인들이 혜택에 누락되는 일이 없길 바라며, 이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산림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청송군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월)부터 4월 30일(화)까지 진행한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4월 1일부터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납부지방



산림청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소(054-850-4116~7)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읍·면 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기간이 마감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5월에 지급대상자를 확정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9월까지 진행하고, 그 결

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10월부터 11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콜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청송군 산림자원과 산림소득팀(054-870-6324)에서 임업직불금과 관련,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임업직불제가 2022년 처음 시행되어 지금까지 관내 임업인 377명에게 12억6천만원 가량이 지급되었다"며,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기간에 유의하여 관내 임업인들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청송군에서는 관내 임업인이 만족할 수 있는 산림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영천시, 2024년 대외 기관평가 목표 달성 대책 보고회 개최

## 상부 기관 평가 선제적 대비... 행정역량 강화 초석

영천시는 지난 29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김진현 부시장 주재로 기관평가 담당 부서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대외 기관평가 목표 달성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상부기관의 분야별 평가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정된 11개 평가지표 중 2024년 하반기에 평가가 실시되는 35개 지표에 대해 보고가 이루어졌다.

보고내용은 중앙 및 경상북도 주요시책에 대한 평가 기준과 항목을 면밀히 분석한 뒤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3월 말 기준 추진상황과 실적 제고를 위한 향후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한편, 영천시는 2023년 기관 수상 58개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사업비 10억여 원을 확보했다.

고용노동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시군문화유산 평가 최우수상,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 우

수기관 등 경제·문화·행정 등 전 분야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행정이 성과로 이어졌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표별 목표달성에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 '첨단베어링 산업 메카 영주시', 일진그룹과 협력 다져

## 일진그룹 이동섭 부회장 만나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기업유치 논의

박남서 영주시장은 지난 28일 (주)베어링아트 영주공장에서 일진그룹 이동섭 부회장과 만나 첨단베어링 산업 메카 영주시와 베어링 산업 앵커기업인 일진그룹이 국내 베어링 산업부흥과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협의했다.

이날 면담은 일진그룹 이동섭 부회장의 (주)베어링아트 영주공장 방문에 맞춰 이뤄졌으며,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추가 투자와 유관기업 유치를 위한 앵커기업의 역할 수행 등 심도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동섭 부회장은 향후 국가산단에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내실있는 기업 유치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긍정적인 회답으로 국가산단 기업유치를 위한 동력 발판 마련에 힘을 실어줬다.

일진그룹은 1973년 창업해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휠 베어링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자동차부품 전문기업으로 현재는 산업용 베어링 산업까지 영역을 확대해, 전 세계 10개국 20개 도시에서 총 16개의 법인을 운영하며 세계적인 기업과 당당히 경쟁을 펼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주)베어링아트는 일진그룹의 계열사로 2011년 12월부터 영주시 장수면 반구전농공단지에서 공장을 설립해 각종 산업용 베어링을 제조하고 있는 베어링 분야 앵커기업이다.

2019년 9월에는 영주시와 반구전농공단지 확장부지 3만평에 3,000억 투자, 500명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원활히 투자를 진행 중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의 성공 여부는 기업유치에



달려야겠다"며 "베어링 산업 분야의 앵커기업인 (주)베어링아트의 추가 투자 유도와 긴밀한 공조로, 국가산업단지 양질의 기업을 유치해 경북 북부 대표 산업도시라는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100개 이상의 기업 방문 등을 목표로 국가산업단지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기업유치 전략 수립 용역 추진으로 기업의 입주 의욕 고취를 위한 인센티브 추가 발굴,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한 맞춤형 유치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다.

정금자/기자



# 울진군, 누구나 살고 싶은 정주환경 조성 농촌 협약 사업 추진에 속도

## 손병복 울진군수, "이번 협약을 추진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으로 활기찬 지역공동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하고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히

울진군은 농촌 정주 여건 개선 및 활력 제고를 위한 농촌협약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촌협약사업은 농촌 정주여건 개선, 공동체 활성화, 농촌다움 등의 목표로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이 스스로 수립한 발전방향에 따라 다양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

이다.

울진군은 지난 2022년 6월 농심축산식품부에 사업을 공모해 2023년 4월 26일에 협약을 체결했으며, 총 사업비 330억 원 규모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을만들기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울진군 북부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울진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180억원, 근남면 기초생활거점 사업에 40억원을 투입한다.

울진군의 상위거점인 울진읍은 기능강화 및 생활 SOC 복합화로 배후마을

에 생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하위거점 중 하나인 근남면은 생활서비스 집적화를 추진하여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사업계획으로는 울진읍에는 복합시설인 '울진 희망나래 복합센터', 청송년/청년을 위한 시설 '청정 가치 자람

터', 근남면에는 복합시설인 '근남면 행복나눔센터'를 준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완성도 있는 기본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협약을 추진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을 활기찬 지역공동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하고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 경북자치경찰위원회, 빅데이터 활용 교통위험지역 파악 개선

## 관계기관과 함께 포항시 및 구미시 교통 위험지역 분석·고민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29일 경상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빅데이터 활용, 교통 위험지역 파악 및 개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상북도와 경북경찰청을 비롯한 포항, 구미 등 시군 교통관련 공무원과 시군 경찰서 교통 담당, 도로교통공단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경상북도가 실시한 포항과 구미의 교통 위험지역 관련 용역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내 교통위험 지역 개선 확산을 위한 검토회의와 보고회

형식으로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손해보험협회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 SK텔레콤의 유동 인구 데이터 등을 분석한 빅데이터를 활용, 사고 유형과 유동 인구에 맞는 지역별 교통안전 시설물 보완 대책 등을 논의했다.

또한,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은 주민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교통 문제를 상시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주기적인 소통 모임이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경북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회의 결

과를 종합해 필요 사업을 개발하고 교통 안전시설을 보완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이며, 향후 포항·구미를 제외한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

이순동 경북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주민과 밀접한 교통 업무가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었지만 다른 기관과 협업·공유하고, 현장에서 직접 꼼꼼히 살펴 도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경북, 황사 위기경보 '관심'발령

## 내몽골고원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 영향, 위기경보 '관심'단계 발령 - 노약자 등 실외 활동 자제, 가축시설 작물도 황사 노출 방지 점검해야

경상북도는 내몽골고원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 유입에 따라 28일 17시 기준 경북,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지역에 황사 위기 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고 밝혔다.

\* 황사로 인한 3월 29일 미세먼지 (PM10) "매우 나쁨(일평균 150µg/m³ 초과)" 예보

이에, 경상북도는 황사 유입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황사 발생 대비 국민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가정에서는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노약자 등 황사에 취약한 계층은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은 황사 대비 행동 요령을 지도해야 한다.

부득이한 외출 시에는 황사-미세먼지

등 유해 물질을 막을 수 있는 KF94 또는 KF80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한다.

농촌지역에서 운동장이나 방목장에 있는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축사의 출입문과 창문을 닫아 황사 유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건조, 볏짚 등은 비닐이나 천막으로 덮는다.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아 외부 공기와 접촉을 줄여야 한다.

조현애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기상청의 예보를 잘 살피고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는 등 철저한 위생 관리와 국민 행동 요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 경상북도 동부청사, '환동해 지역 상생 협력' 킷 오픈

## 환동해지역본부, 지역 기업, 대학 등과 민·관 협력 지속 추진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가 지역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28일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20여명은 상생협력의 첫 파트너인 포스코를 방문해서 포스코 홍보관 및 역사관을

둘러본 후, 포항제철소 현장에서 행복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 논의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영석 본부장은 "장인화 포스코 그룹 회장님의 취임을 지사님을 대신해서 축하드리며 포스코가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는데 경북도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도정 최우선 시책인 저출생

위기 극복 동참과 자원봉사, 해수욕장 정화 활동, 지역경제 활성화, 스포츠 활동 등 민·관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협력 과제를 제시했다.

정창식 포스코 행정담당 부소장은 저출생 극복 등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하는 한편, 포스코의 주요 사업에 대한 경상북도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윤근수/기자

# "행복한 육아의 첫걸음, 영유아전문간호사와 함께해요" 청도군, 생애초기관리사업 등록 임산부 상시모집

청도군은 청도군에 거주하는 임산부나 출산가정이라면 소득수준이나 국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도군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하여 출산 가정의 큰 호응 속에 신청자 수도 늘고 있다.

이 사업은 전문교육을 이수한 영유아 건강 간호사가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가정을 방문하여 양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아기와 산모 건강 상태 확인, 아기 발달 상담, 양육 교육, 정서적 지지 등)을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은 임산부가 겪는 임신, 출산, 양육기의 심리적, 신체적 부담감을 인터넷 등에 의존하거나 밖으로 나가지 않고, 보건소 영유아 전문 간호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육아 관련 정보를 제공하므로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청도군은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기반으로 청도군 관내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및 심리 사회적 지지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출발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군위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홍보

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전년도 12월 결산법인으로, 2023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세무서에 신고하는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 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군위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대

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주의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로 우편 또는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한편, 올해 수출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단, 직권 납부기한 연장 대상인 법인이라도 신고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활한 신고를 위해 위택스로 미리 신고·납부해주시길 것"을 당부했다.

김동현/기자

# 부산시 금정구, 퇴원환자 안심 돌봄 위한 의료기관 업무협약 체결



부산시 금정구는 지난 28일, 퇴원환자 안심 돌봄서비스 '원할 때 돌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내 병원 5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메드윌병원(병원장 박재훈), 새우리남산병원(병원장 박권희), 세웅병원(병원장 배재웅), 아름다운강산병원(병원장 홍수희), 화창한병

원(병원장 최동휘)이 참여했다.

퇴원환자 안심 돌봄 사업은 올해 부산형 함께 돌봄 사업 중 신규사업으로 퇴원환자 대상으로 집중 케어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복귀를 도와 퇴원 후에도 건강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요 대상은 65세 이상 수술 및 골절 등으로 입원 후 퇴원하였으나 보호자가 부재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전문 돌봄 인력 파견을 통해 가사 활동·일상생활 지원·정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희태/기자

# "반가운 일손" 문경시,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설명회 개최

## 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본격 입국

문경시는 지난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농가의 일손을 지원하기 위해 입국하는 6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입국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입국설명회에서는 문경시와 2022년부터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베트남 라이퍼우성에서 파견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안전교육, 인권침해 방지 등의 교육을 진행했으며 문경시청출장소 등 관계

기관이 함께 참석해 마약 검사 및 통장 개설에 협조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고용이 가능한 제도이며, 근로자는 E-8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농가와 협의 하에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고용이 가능하다. 지난해 베트남 라이퍼우성에서 상반기 26명, 하반기 20명을 도입했으며 전년도 상반기 기준 상당히 늘어난 수치로 고용화 및 인구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농가에 배치돼 일손 부족 해소에 도움을 주게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농가에 인건비 안정화와 소득증대에 크게 도움이 됐던 만큼 올해에도 큰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라며 "계절근로자의 적기 배치로 농촌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행복한 학급 만들기

포항포은중학교는 지난 27일부터 3일간 전교생을 대상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행복한 학급 만들기)를 운영하였다

고 전했다. 이번 활동은 친구들과 나누어 가는 의사소통의 유형을 살펴보고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운영되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된 활동은 3학년 27일, 2학년 28일, 1학년 29일로 나누어 각 학급별 3차시로 진행되었다.

개별 또는 모둠을 형성하여 마음 열기 게임, 내 마음과 친구 마음 알기, 경청의 중요성 인식하기, 감정 스피드 게임, 의사소통유형 파악하고 올바른 의사소통 기술 익히기, 친구의 장점 알고

칭찬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올바른 자아 형성과 긍정적 상호관계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다.

활동에 참여한 2학년 학생은 "나와 친구가 서로 말이나 행동으로 갈등을 겪은 일이 있다. 마음과 달리 표현이 서투르고 해결 방법도 몰라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직접 해봄으

윤타용/기자



#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 공동교육과정 현장체험학습

가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지난 28일(목), 학림, 관호, 낙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함께 공동교육과정 현장체험 학습을 실시하여 공동교육과정 네트워크를 통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활동 공유하고 운영함으로써 소규모 유치원의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노력하였다.

유치원 새친구들을 만나는 첫 만남의 숙스러움도 잠시 금세 친구가 되어 즐겁게 활동했다.

유기농 채소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은 먹거리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채소와 친근감을 형성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또한 공동교육과정 체험 학습을 통해 좀더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 인근 유치원 간 유대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동현/기자



# 전남도, 국내 최초 '화합물반도체 생태계' 조성 시동

## 웨이브피아 등 7개 기업과 1천340억 투자협약

전남도가 미래 성장기 유망한 화합물반도체 기업을 유치, 국내 최초로 화합물반도체 생태계 조성 본격 시동을 걸었다.

전남도는 28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주)웨이브피아, 제엠제코(주), (주)인프리즘, (주)선코리아, 그릿사이아(주), (주)올인텍, (주)코텍시스(서면) 등 7개 기업과 1천34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했다.

협약식에선 김영록 전남도지사과 김산 무안군수, 이상훈 (주)웨이브피아 대표, 최윤화 제엠제코(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안 항공정비(MRO) 산단을 중심으로 화합물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화합물반도체는 우주항공·통신·국방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핵심부품으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2021년 시장 규모가 29억 달러였던 것이 2030년 187억 달러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반도체 블루오션이자 차세대반도체로 각광받는 화합물반도체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지난해 목포대학교에 화합물반도체센터를 설립해 설계·제



조·패키징 등 전주기적 토폴솔루션을 구축하고 있다.

또 화합물반도체 기업을 집적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반도체 전문기업을 유치하는 결실을 봤다. 특히 투자 대상 지역인 무안 항공정비 산단을 반도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받기 위해 노력 중이다.

협약에 따라 (주)웨이브피아는 400억 원을 투자해 화합물반도체 설계와 후공정(패키징)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소와

우주항공 부품신뢰성 센터를 설립한다. 제엠제코(주)는 500억 원을 투자해 전력모듈 후공정(패키징)연구소와 후공정(패키징) 부품 양산 공장 등을 건립한다.

(주)인프리즘은 100억 원을 투자해 화합물반도체 설계 연구소와 무선통신 시스템 제조 센터를 설립하고, (주)선코리아는 20억 원을 투자해 모듈 상사(케이스) 등 반도체 부품 공장을 신설한다.

그릿사이아(주)는 10억 원을 투자

해 화합물반도체 디자인하우스 센터를 설립, 초광대역 무선통신 센서 등을 생산하고, 반도체 측정 장비 판매·유지 보수 업체인 (주)올인텍은 10억 원을 투자해 반도체 측정 장비 유지·보수(솔루션) 센터를 건립한다.

또 서면협약을 한 (주)코텍시스는 300억 원을 투자해 전력반도체 열관리 연구센터 등을 건립, 반도체 방열 신소재를 생산한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기업 유치가 마무리되면 무안에 250여 명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이상훈 대표는 "입주 예정인 기업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윤 창출은 물론 전남의 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설계(팹리스), 후공정(패키징), 소재·부품·장비 등 화합물반도체기업이 무안 항공정비 산단에 많이 집적화하게 됐다"며 "화합물반도체 생태계 조성은 물론, 나아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 순천시 'K-디즈니 순천'의 시작, 캐릭터 설치

## 국가정원 남문입구, 오천로터리, 순천의료원로터리에 설치



<남문입구> 여행자의 모험정신을 담은 탐험가 캐릭터 <오천로터리> 국가정원으로 방문을 유도하는 활동적인 캐릭터 <의료원로터리> 애니메이션 제작기지를 이끌어가는 미래인재 형상화 캐릭터

지난해 천만 명이 육박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초대박을 터트린 순천시가 올해도 도심 곳곳에 문화콘텐츠를 입혀 새로운 도시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K-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는 지방소멸 시대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한국판 K-디즈니를 선택했다.

잘 갖춰진 정원이라는 아날로그 판에 애니메이션을 얹힌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을 통해 순천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K-디즈니 순천'을 선포한 것이다.

시는 우선 도심 주요 지점 3개소에 캐릭터를 설치하여 'K-디즈니 순천'의 출발을 알렸다.

3월 28일 국가정원 남문입구, 그린 아일랜드 입구 오천로터리,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를 꿈꾸는 순천의료원로터리에 각각 특색 있는 캐릭터를 설치했다.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의 첫 관문인 국가정원 남문입구에는 여행자의 모험정신을 담은 탐험가 캐릭터를 설치했다.

순천만국가정원과 오천그린광장, 그리고 그린아일랜드의 광활한 면적을 탐험하고자 하는 본능을 자극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다는 설명과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린아일랜드 입구 오천로터리에는

활동적이고 경쾌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캐릭터를 설치해 시민들에게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객에게는 그린아일랜드와 국가정원으로서의 자연스러운 방문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의료원로터리에 설치한 캐릭터는 애니메이션 제작기지를 이끌어가는 미래인재를 형상화한 것으로 원도심의 창의적인 잠재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상징한다.

이번에 설치한 캐릭터는 인공지능(AI)이 디자인한 것을 실제로 제작하여 설치한 첫 사례이며, 앞으로도 도심 속에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입혀 'K-디즈니 순천'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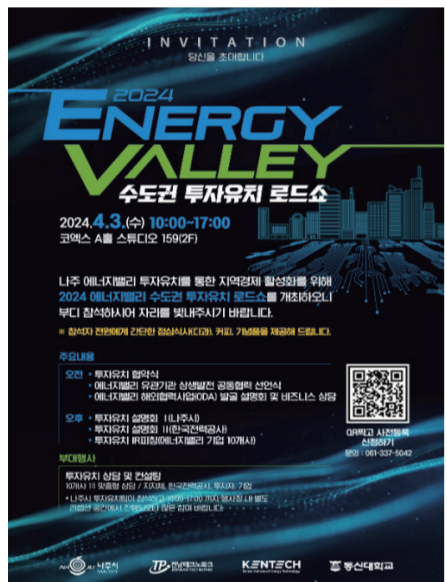
시 관계자는 "이번에 설치한 캐릭터는 도시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감각적인 인종샷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K-디즈니 순천으로 가는 첫 시작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승준/기자



# 에너지기업 투자처는 역시 나주! '2024 수도권 투자유치 로드쇼'

## 4월 3일부터 서울 코엑스서 개최



나주시가 오는 4월 3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4 수도권 투자유치 로드쇼'

를 개최한다.

'2024 수도권 투자유치 로드쇼'는 나주시가 지역을 벗어나 수도권에서 개최하는 두 번째 투자유치 행사로, 앵커기업 확대와 '에너지산업 중심 나주'의 정체성 홍보, 에너지밸리의 지속적인 성장 및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윤병태 나주시장, 김태균 한전 기술혁신본부장, 구자균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장,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할 계획이다.

투자유치 로드쇼는 제14회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24'와 함께 나주 에너지밸리 및 기업들의 투자유치

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첫째날인 4월 3일에는 윤병태 시장의 나주 투자환경 소개를 시작으로, 에너지밸리 투자유치 MOU 체결, 에너지밸리 유관기관 상생발전 공동협력 선언, 나주시와 한전 에너지밸리 투자환경 설명, 10개 기업의 투자유치 데모데이 IR 피칭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IR(investor relations)은 기업인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 설명 및 홍보활동을 펼치는 것을 말한다.

둘째날에는 문승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차세대 전력망 기술인 MVDC(중압직류 배전)를 주제로 세미나 및 패널 토의를 진행한다.

또한 나주시는 3일 동안 나주시 에너지밸리 공동홍보관과, 에너지밸리 기업홍보관 관내기업 11개 사(社), 20개 부스를 운영해 홍보 및 투자유치 상담과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에너지밸리 공동홍보관 등을 통해 나주만의 투자 매력을 적극 공유하겠다"면서 "에너지 유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이번 투자유치 컨설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2023 수도권 투자유치 로드쇼를 개최해 에너지 기업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

김영안/기자

# 강진군 "딸기 육묘 늦지 않게 시작하세요"

## 강진군, 우량묘 생산 위해 좋은 어미묘 적기 정식 당부

딸기재배 농민들 사이에서는 '모종이 반농사'라는 말이 거의 정설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딸기재배에 있어서 모종 농사가 중요한데 최근 모종농사 시작하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강진군농업기술센터가 딸기육묘의 첫걸음인 좋은 어미묘를 적기에 정식하도록 지도하고 나섰다.

딸기 육묘는 어미묘의 정식부터 시작된다. 보통 3월 하순이 적당하고 늦어도 4월 초까지는 정식해 자묘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어미묘는 병이 없는 것으로 선택해 심은 다음 병해충 관리를 잘하는 것이 1년 농사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농민들은 딸기를 수확해서 판매하는 시기와 육묘 시기가 한 달 이상 겹치므로 시기를 놓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따라 강진군 관계자는 적기 정식을 강조하면서 "어미묘를 정식할 때 가장 먼저 배지 및 장비를 소독해줘야 하며, 혹시 어미묘에 묻어 있을지 모르는 해충과 병균에 대해 적절한 약제를 살포해 사전에 예방해 달라"고 말했다.

추윤호/기자



# 남원시, 상생발전 꽃 피우는 교류협력의 길을 열어

## 남원시&여주시 자매결연 협약식 개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와 경기도 여주시가 29일 남원시청 회의실에서 최경식 남원시장, 이충우 여주시장, 전평기 남원시의회 의장, 정병관 여주시의회의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양 도시는 협약을 통해 행정, 경제, 문화예술, 관광,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지역 자원을 최대한 공유·활용하여 주민의 이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서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도자 문화 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 문화공연예술 및 축제 상호교류, 관광자원 활성화, 지역별 우수 농·특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행정 정책 우수사례 공유, 각종 사회단체, 체육단체 간 상호교류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번 협약은 문화와 미래산업도시 남원과 행복도시 희망 여주의 공통점이 고스란히 반영됨에 따라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앞으로 양 도시가 상생발전 하는 기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우리 시처럼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문화관광도시

안으로 도자 문화 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 문화공연예술 및 축제 상호교류, 관광자원 활성화, 지역별 우수 농·특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행정 정책 우수사례 공유, 각종 사회단체, 체육단체 간 상호교류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번 협약은 문화와 미래산업도시 남원과 행복도시 희망 여주의 공통점이 고스란히 반영됨에 따라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앞으로 양 도시가 상생발전 하는 기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우리 시처럼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문화관광도시

사인 남원시와 인연을 맺게 되어 강한 유대감을 느끼며,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 분야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교류 관계가 활발히 이루어져 양 도시가 동반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여주에서 멀리 남원까지 귀한 걸음을 해주신 이충우 시장을 비롯한 여주시 대표단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양 도시가 소중한 가족이 된 만큼 지속적인 교류협력으로 상생발전이라는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여주시와의 협약으로 남



원시의 국내 자매도시는 경남 밀양시, 서울 구로구·서초구, 충남 아산시, 전남 광양시, 경기 화성시·성남시에 이어 8개로 늘어나게 됐으며, 문화·경제 중심의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자매도시 주민 혜택 강화를 통한 관계·생활인구 증대, 교류 기반 확대를 위한 신규 협약 체결 등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남출/기자

# 함평군, 침수피해 예방 선제적 대응에 '총력'

##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 대비 '우수저류시설, 배수펌프장 정비'

전남 함평군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장마철 집중호우 시 농경지 및 도심지 침수 피해에 대비해 우수저류시설, 배수펌프장 정비하는 등 침수예방을 위해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여름철 우기 전 도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우수저류시설 2개소, 배수펌프장 4개소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을 완료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함평군은 유수지, 수문, 제진기 등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우기 전 노후 시설을 정비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 및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

대된다.

이 밖에도 행안부 사업으로 오는 2026년까지 국비 218억 원을 투입하여 함평읍 내교리 엑스포공원 및 기각리, 대동면 향교리 일원에 국가하천 함평천의 높은 외수위로 인한 내수배제 불량 및 소하천 통수능력 부족으로 상습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교·기각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을 진행한다.

이상의 군수는 "최근 엘니뇨 등 이상기후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기상청 관측에 따라



상습 침수구역 사전예찰을 강화하여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철저한 사전 대비와 체계적인 상황대

처로 침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진/기자

# 전북도, 친환경자동차법 담당공무원 실무 교육 실시

## 3월 28일 전주에너지센터서 친환경자동차법 단속공무원 교육

전북특별자치도가 28일 전주에너지센터에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시·군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이 늘어나고 충전인프라가 확충됨에 따라 충전을 방해하는 등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도 늘어나고 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친환경자동차법 위반행위 신고건수는 '22년 3,303건에서 '23년 9,433건으로 2.9배 증가했으며, 처분 건수도 1,164건에서 5,065건으로 4.3배 증가했고, 이에 따른 과태료는 '23년 한해 4억7천여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친환경자동차법 민원신고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처리와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행



정처분 절차 등 실무 위주의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친환경자동차법 설명,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절차, 현장

조사 요령 및 과태료 부과 등 단속공무원이 실무에서 겪는 혼선을 줄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강의는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추진

하는 전주시 관계부서 공무원이 직접 실시한다.

교육과 더불어 친환경차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및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 방안 마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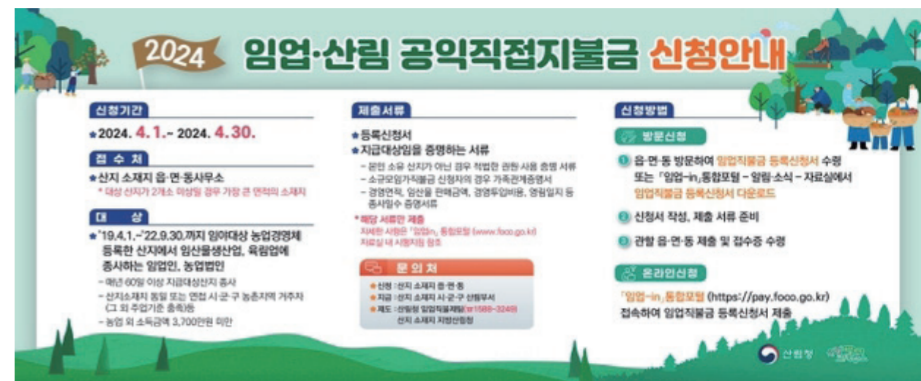
강해진 전북자치도 환경녹지국장은 "지속적인 충전인프라 확충과 함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충전방해 행위를 근절시켜 친환경차 확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불법주정차-친환경차 충전구역)'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충전방해 및 충전 완료 후 지속 주차행위는 10만원,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표시선의 고의적 훼손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남출/기자

# 진도군, 2024년 임업직불금 4월 1일부터 신청·접수

## 4월 1일~30일 신청...온라인 신청 가능



진도군이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을 신청·접수한다. 임업직불제는 농가, 어가보다 낮은 임가소득에 대해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인의 기여를 보상하고 공익기능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신청 자격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으로,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 신청하지 않고도 온라인 '임업-in' 통합포털을 통

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또는 진도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진도군청 산림휴양과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산림청에서도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문의하는 임업인을 위해 전화상담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직불금 해당 임가가 직불금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하겠다"며 "앞으로도 관내 임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건강한 산림 자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 완도청정마켓, 봄맞이 할인·무료배송 이벤트 진행

## 전 상품 5% 할인, 채널 추가·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 제공



완도군 4월 1일부터 4월 26일까지 농수특산물 쇼핑몰인 '완도청정마켓'에서 '치유의 완도! 봄봄봄' 이벤트를 진행한다.

주요 이벤트는 행사 기간 전 상품 5% 할인과 무료 배송,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할인 쿠폰 제공, 퀴즈 맞추기 등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군 대표 축제인 '청산도 슬로건기 축제' 개최를 기념하며 전 상품을 5% 할인하고, 무료 배송을 진행한다. 카카오톡에서 완도청정마켓 채널을 추가하면 2,000원의 할인 쿠폰을 선

착순으로 증정한다. 쿠폰은 1만 원 이상 상품 구매 시 사용 가능하다.

추후 완도청정마켓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완도 전복과 조미김을 최대 1만 원 내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획전도 준비 중이다.

또한 매월 마지막 주 수, 목, 금요일에는 '청정 Day' 기획전을 통해 최대 10% 할인 쿠폰을 지급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채널 추가 쿠폰과 중복 사용이 가능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초성 퀴즈 이벤트도 마련했다.

이벤트는 1일 1회 참여 가능하며, 정답을 맞힐 경우 적립금과 순살 전복을 증정한다.

이외에도 베스트 리뷰를 쓴 회원에게는 추첨을 통해 순살 전복 또는 기프트콘을 증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벤트를 통해 완도의 우수한 상품을 특별한 가격에 만나보시길 바란다"면서 "소비자와 놓여진, 소상공인이 상생하고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양영울/기자

# 신안군 흑산도비비추 등 신안지명 들어간 자생식물 14종 소개

## 자은도 신안자생식물뮤지엄에 영상자료 전시

신안군에는 신안지명이 들어간 자생식물이 멸종위기식물 2급인 신안새우난초 등 총 14종이 있다.

식물 이름에 지명이 들어간 식물종은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다.

이 중 흑산도비비추는 1989년 발표된 한국특산종이며 신안의 흑산도, 홍도, 장도, 가거도에 자생하는 비비추의 일종으로 잎은 반들반들하여 광택이 나며, 예쁜 보라색의 꽃이 핀다.

신안군은 흑산도비비추처럼 식물 이름 속 지명과 관련 있는 식물종을 홍보하기 위해 자은도 신안자생식물뮤지엄에 신안지명 들어간 자생식물을 홍보하는 전시 공간을 마련해 두고 있다.

한 나라나 특정 지역의 기후 환경에 적응하여 살고 있는 식물을 '토착식물' 또는 '자생식물'이라고 한다.

자생식물의 중요성은 한 장소에서 오랜 세월 동안 기후의 변화는 물론 질병에 저항하며 살아남은 그들만의 귀중한 유전정보를 축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안에는 자생식물이 1,878종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으로서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뿐만 아니라 신안갯벌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신안지명이 들어간 자생식물을 자세히 알려면 자은도 신안자생식물뮤지엄에서 관람할 수 있다.

2021년 개관한 이 뮤지엄은 신안 자생식물을 전시, 보전, 관리하는 공간으로, 20개의 주제별로 신안과 연계된 자생식물의 이야기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신안군에는 신안지명 들어간 자생식물이 가거누은곤이끼, 가거꼬리고사리, 가거개미덩굴, 가거양지꽃, 흑산가시나무, 홍도까치수염, 홍도서덜취, 홍도고들빼기, 가거줄사초, 흑산도비비추, 홍도원추리, 신안새우난

초, 다도새우난초가 있다. 이 중 신안군에만 자생하는 멸종위기종 신안새우난초는 특히 주목받고 있다.

신안새우난초는 새우난초 속의 식물로, 다른 종에 비해 꽃이 비교적 크고 다양한 색상을 띠는 아름다운 식물이다.

그러나 많은 애호가에게 남획의 대상이 되어 개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특히 신안새우난초는 생육 지역이 국내 신안에만 국한되고, 생육 미기후 등이 민감하여 멸종에 취약하다.

신안군과 2021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한 국립생태원에서는 신안새우난초 진화 발아 및 증식에 최초 성공했으며, 이에 따라 대체서식지의 조성을 통한 서식지 내·외의 다양한 복원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신안군은 이를 주제로 '신안 멸종위기종' 기획전시를 4월 27일부터 3개월간 자은도 신안자생식물뮤지엄에서 개최한다.

이 기획전시는 신안 멸종위기종 실태와 보호 의미를 알리는 전시기획을 준비 중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2022년에 개정된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는 수달 등 총 282종에 달한다"라며 "이번 기획전시를 통해 신안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알아가고 그들을 보호할 방법을 함께 찾아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신안군은 자생식물의 보전과 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이를 통해 신안새우난초와 같은 멸종위기종이 다시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자 한다.

김영진/기자

# 목포시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 위한 힘찬 활동 시동

## 758명 사례관리 아동 및 가족 대상, 5개 분야 40종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목포시 드림스타트가 취약계층 아동들의 밝고 건강한 성장과 꿈을 향한 힘찬 도약을 시작한다.

시는 아동전담 통합사례관리사가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초기 상담 및 생활실태를 파악한 후 사례관리 대상아동(310여명)을 선정하고, 가족 내 문제해결 및 가족기능 향상을 위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시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오는 4월 6일까지 목포시외로원과 연계해 학령기 아동 250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검진 결과에 따라 사후관리가 필요한 아동에게 비판관리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계할 예정이다.



아울러, 목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4월 중에 262명의 6세이상 아동과 212명의 양육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에 따라 심리상담기관과 협약해 우울, ADHD, 분노조절장애 등

고위험군으로 치료가 필요한 아동·양육자에게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가족성장 아카데미와 심리정서 지원사업이 진행된다.

이 사업은 행동의 변화가 필요한 아동과 양육자에게 올바른 교육과 심리치료를 진행함으로써 아동의 올바른 성장과 가족 기능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과 연계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5개 분야에서 40여종에 이르는 가족캠프와 진로캠프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2,074명에게 제공했다.

박종배/기자

# 보성군, (재)보성군장학재단 2024년 상반기 장학생 선발

## 4월 15일까지 접수, 10개 분야 341명, 3억 3천만 원 지급 예정



보성군은 (재)보성군장학재단이 미래의 희망인 지역 인재를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2024년 상반기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본인 및 부모(친권자)가

공고일 현재 보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초·중·고교생과 대학생(대학생 본인은 타 지역 주소 인정)이다.

선발 분야는 성적 우수 80명, 미래인재 66명, 희망나래 16명, 보금자리

57명, 한울타리 39명 등 10개 분야로 총 341명에게 3억 3,57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장학금 수혜 범위와 기회가 확대된다. 가구당 기준소득(건강보험료)을 3자녀 이상은 50%, 2자녀는 30% 감경 적용하며, 귀농·귀촌인 자녀에게 지원하는 행복동지 장학금은 인구 유입 및 지역 인재 정착을 위해 신설했다.

신청을 희망자는 해당 학교 및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선발은 선발 요강에 의거 해당 학교 및 읍면사무소에서 1차 심사를 거쳐 재단 이사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장학금은 6월 중에 지급할 계획이다.

장학생 선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재단사무국으로 문의 또는 보성군 및 보성군장학재단 누리집(열린 행정-공직서함)을 참고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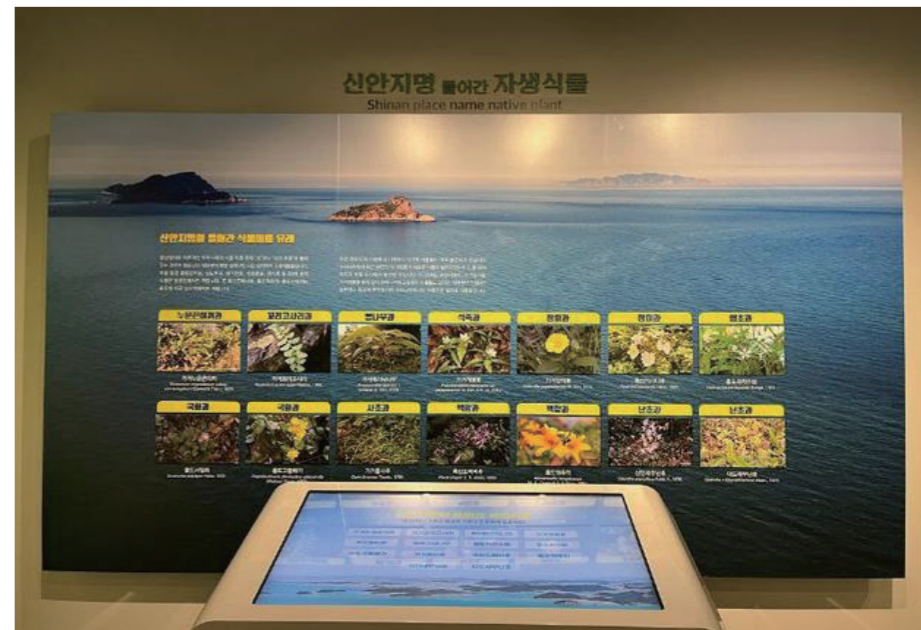
이외에도 (재)보성군장학재단은 학생

들의 소질과 재능 개발 등을 위한 특기적성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자 재능키움 4개교 3,800만 원, 꿈키움 2개교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재단 관계자는 "지역의 분야별 우수 인재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며 "장학생 선발 규모를 점차 늘려나가 훌륭한 인재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더욱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보성군장학재단은 장학사업 이외에도 장학금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알리고 장학금에 대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4회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기금기부자와 수혜자 간 소통의 창구가 될 장학회보 발간으로 장학 정보를 교류할 예정이다.

최원영/기자



# 김진태 강원도지사, 지하 1,150m로 입갱해 석탄 캐며 막장 속 산업전사의 삶 체험

### 김진태 강원도지사, 지하 1,150m로 입갱해 석탄 캐며 막장 속 산업전사의 삶 체험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3월 28일 태백의 마지막 남은 탄광이자 한때 아시아 최대 규모의 탄광이었던 장성광업소에 방문해, 막장까지 들어가 직접 채탄을 한 최초의이자 마지막 도지사 광부가 됐다.

이날 입갱에는 김진태 지사를 비롯해 이상호 태백시장, 김홍섭 강원지방노동지청장이 함께 했다.

작업복으로 환복한 김 지사는 갱도로 내려가는 케이지로 이동한 뒤 광부들과 함께 작은 헤드램프에 의지한 채 63빌딩 4개 높이 이상의 지하 1,150m 깊숙한 갱도 안으로 들어가 석탄 캐는 작업을 함께 했다.

김진태 지사는 거머 질어진 땀방울을 연신 닦아내며 "좁고 캄캄하며 탄가루가 날리는 악조건 속에서 광부가 흘린 수많은 땀방울과 눈물이 있었기에 우리나라 산업화가 시작될 수 있었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며 광부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두 시간 여의 채탄작업을 마치고 출갱을 한 김 지사는 "입갱을 하면서 '오늘도 무사히, 안전제일'이라는 문구를 봤는데, 이렇게 나오니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이 가장 먼저 들며 광부의 심정을 이해하게 됐다"며, "매일 이곳에 드나들은 광부들의 희생과 헌신은 역사적으로 절대 잊혀져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하며 광부를 기억하고 예우하는 데 책임을 다할 것을 전했다.

현재 도에서는 석탄채굴과정에서 순직한 광부 산업전사를 역사적으로 기억하기 위해 4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인허가 등 사전절차 중에 있다.

이후, 김 지사는 장성광업소 회의실



에서 태백시 현대채워위원회와 진폐재해자단체 대표와 현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막장 속 고단했던 산업전사의 삶을 몸소 체험했다"며 일일광부 체험의 소회를 밝혔고,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범위를 만성폐질환자까지 확대하고 문화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더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전했고, "앞으로 여기서 일하신 분들에 대한 고용 문제와 폐광되는 광업소의 시설물 활용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는 폐광지역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전략적으로 움직여 나가야함을 강조하며 "폐기물물 취급되는 폐광지역 경색을 산업자재로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강원특별법 3차 개정으로 추진 중"임을 밝히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언급한 만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편, 현재 도에서는 장성광업소 폐광으로 900여 명의 실업과 3조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준비 중에 있다.

또한, 폐광지역 종합발전 전략과 대체산업 육성을 각각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폐광지역 전담조직을 1개과에서 2개과(자원산업과 → 폐광지역지원과, 대체산업육성과)로 7월 중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강호철/기자

# 아산시 민선 8기, '종합청렴도 1등급' 도전에 주목하는 이유

### '아트밸리 클린 아산 반부패·종합청렴도 향상 종합계획' 추진

"탁한 휴탈물도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아 빛깔이 맑아지듯, 공직자는 항상 물욕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어떠한 유혹과 청탁도 이겨내도록 청렴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난 6일 열린 3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울곡 이이의 청렴명언을 담은 '청렴특독 메시지'를 통해 직원들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박 시장은 앞서 2월 '공직자 청렴도 집 선포식'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에 도전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청렴특독 메시지'에 담긴 박 시장이 직접 새로운 문구를 인용해 발표하고 있다.

아산시가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한다면, 민선 8기뿐 아니라 시정 역사상 최초의 성과가 된다. 특히 아산시가 산업단지과 공동주택 등 도시개발 수요가 전국 최상위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의미가 크다.

실제 권익위의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아산시가 속한 기초 시(市) 단위 75개 지자체 가운데, 1등급을 받은 3곳은 아산시보다 인구가 적거나 개발 수요가 낮은 소규모 도시들이었다.

이에 아산시는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시행하는 등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종합청렴도 2등급 불구, 아직 목마른 아산시

외부 대비 내부평가 저조...소극행정·사익추구 취약

아산시는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82.5점으로 2등급을 받았다. 2등급은 역대 가장 높은 등급(2021년 2등급)과 동률이다.

82.5점이라는 수치 역시 전년도보다 3.8점 상승한 것이며, 기초 시 단위 평균(76.6점)보다 5.9점이나 높다. 부패·비위 발생 현황을 보면 2023년 15건으로, 5년 전(2019년 172건)에 비해 96%나 감축했다. 나름 괄목할

만한 성과라 자평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박 시장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1등급' 달성이 손에 닿을 것 같은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소가 가능한 부문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권익위의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내부와 외부의 설문조사) ▲청렴노력도(시책추진평가) ▲부패실태(감정) 등의 점수를 합산 적용한다.

아산시의 청렴체감도를 보면, 시민들이 바라본 외부체감도(87.6점)에 비해 직원들의 내부체감도(65.6점)가 훨씬 낮다. 내부체감도에서도 직원 간 특혜 의혹, 인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불만 등이 가장 취약한 항목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의 상호 신뢰가 부족하다는 방증이었다. 이에 박 시장은 직원 청렴특강을 통해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동료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걸 믿어 주자"고 독려하기도 했다.

또 외부체감도에서는 '소극행정'이 가장 취약했다. 청렴노력도 부문에서는 '부패취약분야 집중개선'과 '공공재정 부정수급 자체점검 노력 제고' 등의 점수도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아산시가 종합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난 셈이다. 이에 아산시는 취약 분야에 대한 정확한 원인진단과 함께, 맞춤형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문기관 통한 자체청렴도조사 '맞춤형 대응'

유지상 감사위원장 "청렴도 1등급 달성, 충분히 가능" 먼저 전문기관에 의뢰해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자체청렴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3월까지 완료하고 전문가의 견해를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내부체감도 향상을 위한 신규 시책도 눈길을 끈다. 아산시는 7급 이하 MZ세대 공무원과 6급 이상 선배 간의 교감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주니어·시니어보드 혁신모임'을 운영한다. 인사와 조직개편에 대한 소통 창구로 익명



청렴 결의 및 클린 아산 선포식 "일, 나와 의 약속"

을 주제로 한 '인사·조직 신문고'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외부체감도 개선 시책으로 '만사형통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민선 8기 공약인 만사형통시스템은 민원 접수부터 완료까지 모든 상황을 민원인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알림톡 또는 문자로 안내해 행정 투명성을 높인다.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행정 고충을 조사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시민문부즈만 제도'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 밖에도 ▲청렴시민감사관과 단체장이 함께하는 '청렴도 향상 대책 회의' ▲적극행정 보장을 위한 '사전 컨설팅'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환수 및 관리를 위한 '부가가치세 업무개선 TF' 구성 등 주요 시책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지상 시 감사위원장은 "지난해 2등급을 받았지만, 자체 점수는 1등급과 근소한 차이였다"면서 "이번 전문기관의 자체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대응한다면,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또 "최근에는 향음집대·비물수수 등 전통적인 부패뿐 아니라 소극·불공정·불투명 행정까지 부패로 인식할 만큼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졌다"며 "청렴이 제도를 넘어 일상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원호/기자

# 충남도, 경력 단절 여성 위한 취·창업 한마당

### 29일 충남 워크 페스티벌 개최...건강한 직장문화 확산 도모



충남도는 29일 충청남도자리경제진흥원과 함께 충남도서관에서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2024년 충남 워크(W-inK)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여성 경력 단절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건강한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정착

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마련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김응규 도의회 복지환경위원장, 주희정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남지회장, 김찬배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장, 도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행사는 유공자 표창, 토크콘서트, 채용설명회, 기업설명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공헌한 개인과 기관, 공무원 등에 총 8건의 표창을 시상했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여성 고용 지원을 위한 체험관, 채용관, 홍보관 등 총 4개 관을 운영하고 '여성 경력을 잇다'를 주제로 경력 단절 예방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또 금융·공공기관 채용설명회를 통해

결과와 출신, 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에게 취·창업 관련 정보 등 다양한 취업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자리에서 전 부지사는 "이번 행사는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면서 "도는 일·생활 균형 및 양성 평등한 직장문화 조성 등 여성이 경제활동에 지속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경력 단절 여성은 취·창업 및 구직 준비, 고용 유지 등과 관련해 충남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역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정근/기자

# 충북도 문화소비 365의 새로운 시작, 도민들 뜨거운 호응

### 사업개시 한 달 만에 도민 1만2천여명 참여, 전년 대비 2배 돌파



충청북도, (재)충북문화재단, 농협은행 충북본부가 협력하여 시행하고 있는 문화소비 365 사업에 신청한 도민이 사업개시 이후 한 달 만에 1만 2천명을 돌파했다.

올해 3월 1일부터 문화체험과 문화교육까지 사용분야를 확대하고 온라인 결제를 연결하는 등 제도를 개편하여 새롭게 시행 중이다.

3월 28일 기준 신청인원은 12,332명으로, 작년 7 ~ 12월간 신청인원이 5,800여명임을 감안할 때 문화소비 365 사업에 대해 도민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문화예술 업계에서도 반기고 있다. 공연, 전시, 도서, 영화, 문화체험,

문화교육 분야까지 확대하여 현재 전년도 가맹점(86개)의 3배 규모인 265개 사업체(기관)가 가맹점으로 등록을 완료했다.

현재 가맹점 추가 신청 및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가맹점이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소비 365 회원 1만명 돌파를 기념하여 4월 15일부터는 문화소비복권 이벤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4월 15일부터 1개월간 문화소비 365 가맹점에서 소비한 카드 영수증을 카카오톡 채널 충청북도 문화소비 365에 온라인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충북도 박선희 문화예술산업과장은 "문화소비 365 사업은 도민의 문화향유를 증진하고 지역 내 문화소비를 활성화하여 양질의 공급을 창출하는 충북의 문화예술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라며 "도민들의 호응이 뜨거운 만큼 일상 속에 더 많은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

고정화/기자

**제47회 보성군민의 날**  
5. 3. (금) 보성군청운동장  
군민 화합 페스티벌, 육아공연 등

**제19회 보성녹차마라톤대회**  
5. 4. (토) 8:00 ~ 16:00  
보성군청운동장  
코스: 하프 10km, 5km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5. 4. (토) ~ 5. 6. (월)  
보성군청예술회관 일원  
전국 한소리, 교수, 공연단체, 수요제

**제102회 어린이날 행사**  
5. 5. (일) 보성군 일원  
막걸리, 체험마당, 놀이마당 등

**제20회 일림산 철쭉문화행사**  
5. 4. (토) ~ 5. 6. (월)  
용치면 용림리 일림산 일원

**제2회 보성대일리콘서트 with 드론쇼**  
5. 4. (토) ~ 5. 6. (월)  
농림마트 주차장 (보성역 옆)

2024. 5. 3. (금) ~ 5. 7. (화)  
한국차문화공원 일원

보성 차(茶)를 활용한 공식행사, 특별행사, 기획행사, 차 문화체험, 전시 / 공연, 공연 등

● 주최 / 주관 보성차생산지 조합 | 보성다향대추축제추진위원회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남도 Jeollanamdo 보성군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 KTA Korea Tourism Association

※ 축제 일정 및 행사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SK하이닉스 권언오 부사장 “차세대 HBM은 Specialized + Customized”



SK하이닉스는 지난 연말 시행한 2024년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에서 AI 인프라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Infra' 조직을 신설했으며, 산하에 HBM\* PI담당 선임임원으로 권언오 부사장을 선임했다.

\* HBM(High Bandwidth Memory): 여러 개의 D램 칩을 TSV(Through Silicon Via, 수직관통전극)로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고부가가치, 고성능 제품. HBM은 1세대(HBM)-2세대(HBM2)-3세대(HBM2E)-4세대(HBM3)를 거쳐 현재 5세대(HBM3E)까지 개발됨. HBM3E는 HBM3의 확장(Extended) 버전으로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이 제품 양산을 시작함

권 부사장은 D램 개발 연구위원으로 있던 2022년 세계 최초 모바일용 D램인 LPDDR에 HKMG\* 공정을 도입했으며, 초고속·초저전력 특성을 동시에 구현한 LPDDR5X와 LPDDR5T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는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SUPEX추구상\*'을 수상했다.

\* HKMG(High-K Metal Gate): 유전율(K)이 높은 물질을 D램 트랜지스터 내부의 절연막에 사용해 누설 전류를 막고 정전용량(Capacitance)을 개선한 차세대 공정. 속도를 빠르게 하면서도 소모 전력을 줄일 수 있음

\* SUPEX추구상: SUPEX추구상은 SK그룹 내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을 이뤄낸 멤버사 구성원들에게 수여됨

올해 권 부사장은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SK하이닉스 HBM의 기술 로드맵을 완성하는 중책을 맡았다. 뉴스룸은 그를 만나 차세대 HBM 기술 개발 비전과 AI 시대에 대비한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

HBM에 집중하는 'HBM

해 빠른 조율과 실행이 가능하며, 개발 단계에서부터 직접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HBM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는 HBM Business 조직이 구성된 덕분에 기술 역량을 집중해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으며, 구성원들 역시 목표 지향적인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사업 관점에서 기술에 필요한 흐름을 읽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부분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반도체 요소 기술 역량, HBM 기술 혁신 위해 필적 계획

SK하이닉스 권언오 부사장 “차세대 HBM은 Specialized + Customized”\_03\_인물\_사진\_2024 권 부사장은 자신의 경력 중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LPDDR에 HKMG 공정을 도입한 사례를 꼽았다. HKMG는 반도체 요소 기술\*의 대표적인 혁신 사례 중 하나다. HKMG 공정은 시스템 반도체에는 더 밀접 적용되었지만,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누설 전류를 제어해 전력 소모를 최소화해야 하는 모바일용 D램에서는 구현하기가 쉽지 않았다.

\* 요소 기술: 제품의 특성 변화와 개선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



그는 과거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서 시스템 반도체에 HKMG 공정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모바일용 D램에서의 기술 장벽을 돌파해냈다. 권 부사장은 “메모리 회로 구조의 패러다임을 바꾼 기술적 성과를 SK하이닉스 구성원들과 함께 만들어냈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HBM은 어렵고 복잡한 선행 기술의 제품으로, 가장 기술집약적인 D램이라 할 수 있다”며, “시스템 반도체에서 메모리 반도체로의 도전을 감

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가 주도하는 혁신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혁신의 시작이 HBM이라 확신했습니다. 제가 쌓아온 경험이 SK하이닉스의 HBM 기술력에 더 큰 시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I 시대 빠른 변화 앞에 자부심 가지고 도전할 것

SK하이닉스 권언오 부사장 “차세대 HBM은 Specialized + Customized”\_04\_인물\_사진\_2024 권 부사장은 앞으로의 HBM 시장에 대해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담은 제품으로 전문화(Specialized)되고, 고객 맞춤화(Customized)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는 차세대 HBM은 기능적 우수함은 기본이고, 고객별로 차별화한 스페셜티(Specialty) 역량과 메모리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시대에 들어서며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수준의 빠른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화를 예측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인데요. AI 시대를 선도하고 1등 기술력을 이어가기 위해 HBM PI 조직 역시 요소 기술의 혁신과 빠른 제품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고객 및 외부 파트너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

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 부사장은 단순히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시야를 넓히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향후 AI용 메모리는 현재와 같은 데이터 센터(向) 외에도 특정 목적에 맞춰 성능과 효율성을 높인 ASIC(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형태로 확대될 것입니다. HBM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D램이 AI용 메모리로 사용될 것이고, 전통적인 특성 외 다양한 조건으로 특화된 소자 개발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격변기에는 여러 기술을 융합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시야를 넓히고, 과감히 도전하며 실패하더라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도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ASIC(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특정 목적을 위해 설계된 집적 회로. 주문형 반도체라고도 함

“중단 수많은 기술 변곡점이 있었지만, AI가 만드는 변화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거셉니다. SK하이닉스가 압도적인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현재의 기술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구성원이 AI 시대의 주역입니다. 저 역시 그러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HBM 기술력을 높여 가겠습니다.”

김범상/기자



Business’ 조직 신설 통해 개발 효율성 높여

SK하이닉스 권언오 부사장 “차세대 HBM은 Specialized + Customized”\_02\_인물\_사진\_2024 AI 기술 진화와 함께 AI 메모리를 대표하는 HBM 수요 역시 급성장하고 있다. 권 부사장은 “SK하이닉스의 HBM 제품에 대한 모두의 기대가 큰 시점에 중책을 맡게 되어 자부심과 동시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세계 최고의 HBM을 개발한 우리 구성원들의 경험과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차세대 기술 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회사는 지난 연말 HBM 개발부터 제품화, 사업화까지 전 과정에 걸쳐 효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부문별로 흩어져 있던 기능을 한데 모아 ‘HBM Business’ 조직을 신설했다. 제품을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흔치 않은 사례로, HBM 선도 기업 지위를 지키겠다는 회사의 의지가 담겨 있다.

권 부사장은 HBM Business 조직의 가장 큰 강점으로 높은 효율성을 꼽았다. 개발 초기 의사결정 과정을 단축

# 서울시, 카이스트와 건강·심리상태 파악하는 'AI안부확인 기술' 개발한다

‘AI전화’로 고립가구 건강·심리 파악, 우울감 해소·심리안정 돕는 모델 개발 착수

서울시가 카이스트와 손을 잡고 고립가구 발굴을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선다. 시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해 대상자의 심리상태와 고립 위험신호를 감지해 내는 ‘고도화된 AI안부확인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그동안 서울시복지재단과 함께 기존 AI안부확인서비스를 활용해 쌓아온 고립 또는 고립 위험가구 발굴·지원 관련 대화 데이터를 카이스트에 제공, 카이스트는 이를 바탕으로 고립가구 돌봄에 특화된 ‘맞춤형 대화형 AI’ 개발 등을 진행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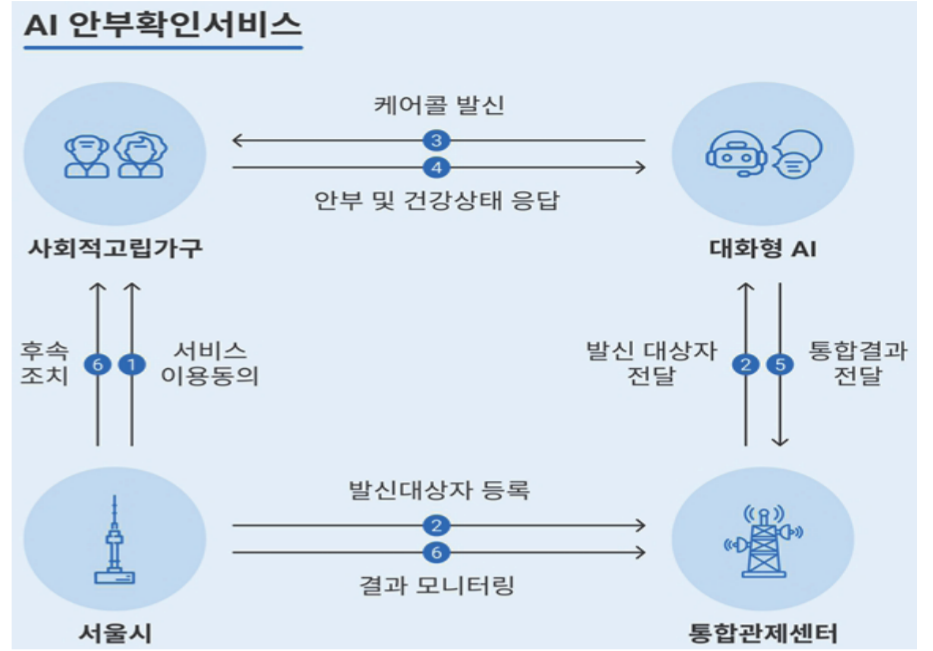
서울시는 2022년 10월부터 사회적 고립위험가구의 주기적인 안부 확인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AI를 활용한 ‘안부확인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으나 위험 수준에 이르기 전에 고립 신호를 감지하고, 심리안정을 제공해 우울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AI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게 됐다.

카이스트는 ‘고립 위험’이 있는 대상자를 찾아낼 수 있는 고립 위험 지표 개발과 함께 고립감 해소·심리안정을 위한 시나리오 이를 기반으로 한 대화형 AI 개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카이스트는 ‘딤러닝 방식’을 통해 우울감과 자살, 고독사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시나리오와 고령자 고립가구에 특화된 심리안정 시나리오를 개발, ‘대화형 AI’에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기술 개발을 통해 ‘AI안부확인 서비스’가 고도화된 고립 위험 신호를 보다 정교하게 선별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독사 고위험군을 조기에 찾아내 위험상황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고립가구에 대한 전반적인 돌봄 서비스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보다 나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를 위해 3월 29일 서울시-카이스트-서울시복지재단 ‘AI안부확인서비스 데이터 활용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은 서면교환 방식으로 이뤄지며, 서울시는 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 등에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업에 참여하는 카이스트 문재균 공과대학장과 전산학부 차미영 교수,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최문정 교수는 “이번 관·학 협업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 인간중심 AI 기술·서비스에 대해 고민할 수 있게 돼 큰 의미로 다가온다”며 “사람과 사람을 이어줄 수 있는 따뜻한 소셜케어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국내 최고의 과학기술대학과의 협업으로

단순히 고립가구의 안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건강, 심리상태까지 섬세하게 파악해 ‘정서적 회복’을 돕는 고도화된 AI 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위기가구 발굴과 보호를 위해 기관·기술 협력 등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영양 들여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꼭오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에 빠지는 영양으로 오세요



# Z O M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비유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선계곡, 침백공원, 촉백수림, 외씨바서길
- 영양의 역사,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루, 주실마루,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랑국제발해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랑생태공원, 영랑추후보전지, 일월산자연생태공원, 영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영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 서울시, '러너스테이션' 공사장 가림막 MZ 홀린 '매력펜스'로 탈바꿈

오는 4월 20일이면 러닝 명소가 재탄생할 '여의나루역 러너스테이션' 내부 공사장 가림막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공간을 넘어 재미로 가득찬 '매력펜스'로 탈바꿈한다.

공사장 가림막 단절공간 아닌 편(FUN)공간으로...신진작가 공공디자인 참여기회↑

서울시는 '러너스테이션' 조성으로 작업 중인 여의나루역 지하 1층 공사장 가림막을 M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신진작가들의 작품으로 채워 전시한다고 밝혔다. 일명 '매력펜스'로 불리는 공사장 가림막 전시 공간은 여의도 불꽃축제가 시작되는 3월 2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심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시는 오는 4월 20일 여의나루역 러너스테이션 공개와 동시에 한강에서 즐기는 러너들의 축제인 '서울 러너스 페스티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매력펜스' 조성은 공사장의 소음, 먼지 등을 차단하고 지하철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공사장 가림막이 주는 단절감이 아닌 일상 속 이색적인 재미를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지하철 역사를 반영한 '매력펜스'에는 지구의 명소를 찾는 '하얀마녀'와 예술가의 친구 '고양이 트라' 그리고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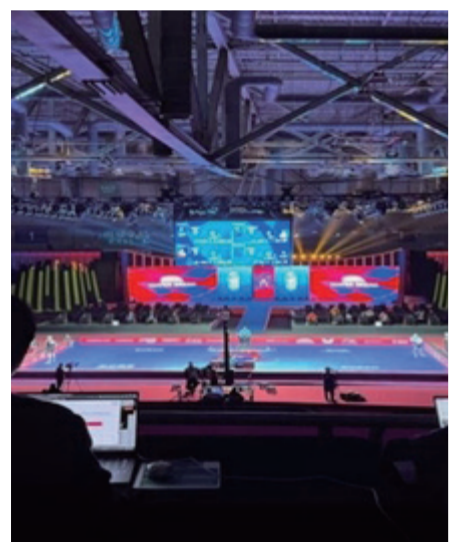
시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2024년 여의도 불꽃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담는다. 서울디자인페스티벌이 주목하는 작가 12인에 선정된 작가 '쿠나(CUNA)'와 최근 사회관계망(SNS)에서 MZ세대, 청소년층의 인기 있는 신진작가 '네코트라(NEKOTTRA)'가 협업해 작품 전시에 참여했다. 작가 '쿠나(CUNA)'는 대표 캐릭터 '하얀마녀'가 지구를 방문해 세계를 여행한다는 콘셉트의 작품으로 유명하며, 동화적인 감성과 몽환적인 분위기의 화풍으로 세계적인 명소를 그려내어 인기를 끌고 있다. 작가 '네코트라(NEKOTTRA)'는 '트라'라는 고양이 모티브 캐릭터를 앞세워 팬들이 원하는 다양한 고양이의 얼굴을 그려주는 소통형 콘텐츠로 SNS 활동 1달 만에 팔로워 6,000명 및 누적 조회 수 400만 회를 돌파하는 등 인기가 급상승 중이다.

특히, 작품에는 여의나루역에서 하차해 출구로 나가는 지하철 이용자의 동선에 맞춘 동적인 요소도 있어, '러닝명소'로서의 여의도의 이미지도 담겼다. 작품 곳곳에는 제2롯데월드, 서울마리나 등 서울의 명소가 숨은그림찾기처럼 배치돼 볼거리와 재미를 더했다. 작품의 중앙부에는 서울시의 슬로건 'SEOUL MY SOUL'이 시선 처리가 편안하도록 하단에 배치되어 있으며, 작가들의 대표 캐릭터 '하얀마녀'와 '고양이 트라' 그리고 청룡의 해를 상징하는 용이 나란히 서 있다. 최신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봄나들이와 러닝으로 여의나루역 일대를 찾은 시민들이 일상의 피로를 잊고 서울의 이색적인 매력과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매력펜스를 조성했다"며 "이색적인 포토 명소에서 재밌고 즐거운 추억을 많이 남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부산시 공식 유튜브 채널 '부산튜브' 봄맞이 새단장... 볼거리 풍성

부산튜브 봄맞이 개편 추진... 주요 개편 방향은 '부산시민과 함께 액티브(Active)한 부산!'



시즌1에서는 부산 버스, 금정산, 자전거 덕후의 이야기를 담았다. 시즌2에서는 부산 탁구, 목욕탕, 바다 수영 등 더 부산스러운 사연과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낼 예정이다. 다음으로, 부산시민과의 소통과 채널 참여 확대를 위해 추진했던 '나만의 최애월을 찾아라' 이벤트 사연 공모 당선작인 '부산튜브' 채널의 대표 채널아트(간판 이미지)로 매월 선보인다. 특히 부산 웹툰 작가들이 이들의 사연을 채널아트용 이미지로 제작을 맡아 의미가 더 특별하다. 매달 다른 사연을 기반으로 한 채널 아트를 선보여 보는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방문에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생생한 부산을 알릴 예정이다. 해당 콘텐츠는 지난 3월 27일에 게시된 1편 대저 토마토 축제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에 업로드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공무원 크리에이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상승에 발맞춰 공무원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자, 시 공무원이 출연하는 '부산의 정·수'와 정책 담당 공무원이 직접 출연하는 '원이의 자급자족' 콘텐츠를 선보인다. '부산의 정·수' 콘텐츠는 시 공무원인 정수영 사무관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시정 키워드를 직접 선별해 60초 내 숏폼(Shorts) 형식으로 소개한다. '원이의 자급자족'은 시 정책 담당자가 직접 출연해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정책을 홍보한다는 의미로 새롭게 기획, 제작되는 콘텐츠다.

# 지역을 넘어 세계적 축제로 문체부, '로컬100'창원과 통영 지역축제 체험·홍보 나서

문체부, '로컬100'으로 선정된 진해군항제와 통영국제음악제 현장 방문

경남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28~29일까지 이틀간, '로컬100'으로 선정된 진해군항제와 통영국제음악제 현장을 방문한다. '로컬100'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사업으로 지역의 매력 있는 문화자산을 발굴·육성·확산하기 위해 명소, 콘텐츠, 명인 등 지역을 대표하는 유·무형 문화자원 100개를 선정해 국내외에 홍보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0월 경남도는 문체부의 '지역문화매력 100선(로컬100)' 공모사업에 참여해 진해군항제, 진주남강유등축제, 통영국제음악제, 밀양아리랑대축제, 창녕우포늪, 남해독일마을맥주축제, 산청동의보감촌 등 7곳이 최종 선정됐다. 문체부는 '로컬100'으로 선정된 창원, 통영의 지역 축제와 행사를 직접 체험하고 지역방문 촉진 캠페인을 전개하여 도내 매력 넘치는 명소와 축제를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의 방문과 캠페인에는 경상남도 및 창원시, 통영시 관계자를 비롯해 지역 기업인, 청년기업가, 문화예술인, 국내외 기자단, 지역 언론사 등이 참여한다. 28일에는 창원 경화역 벚꽃길과 드라마 '로망스' 촬영지인 여좌천을 도보로 투어하며 관광객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 후 진해군항제 군악의

장 페스티벌 오픈리허설 현장을 방문한다. 29일에는 통영 동원중학교를 방문하여 지역학교 연계 클래식 교육과 관련된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삼도수군 통제영 세병관을 방문하여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현장을 점검한다. 이후, 강구안 문화마당에서 프린지 공연 관람 후 통영국제음악제 개막공연에 참석한다. 이정곤 경상남도 문화체육관광장은 "'로컬100' 지역방문 촉진 캠페인을 통해 경남의 매력적인 문화자산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우리 도는 시군과 협력하여 도내 아름다운 지역 명소와 축제를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로컬100'에 선정된



부산 대표 시민 소통 채널인 시 공식 유튜브 채널 '부산튜브'가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새롭게 변신한다! 부산시는 봄을 맞이해 시 공식 유튜브 채널 '부산튜브'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널 개편의 주요 방향은 '부산시민과 함께 액티브(Active)한 부산!'이다. 이는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생생한 시청 현장을 생동감 있게 소개하는 데 개편 중점을 둔다는 의미이다. 먼저, 지난해 전체 조회수 100만 회를 달성하며 큰 관심과 호평을 받았던 부산시민 인물 웹 다큐 '부산 덕후멘터리'의 시즌2가 오는 5월 공개된다. '부산덕후멘터리'는 부산을 사랑하는 부산시민의 시선으로 부산의 매력을 소개하는 인터뷰 기반 웹 다큐멘터리다.

'나만의 최.애.월을 찾아라'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달'에 대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공개 모집하고, 당선작을 웹툰 작가들과 부산튜브 채널아트 이미지로 제작하는 이벤트로 지난 2월 추진했다. 총 10명의 사연을 선정했다. 또한, 기존 정보 전달 중심의 뉴스 콘텐츠인 '부산매거진'이 현장성과 체험을 강조한 콘텐츠로 구성된 '주말에 뭐하지(Weekend do it!)'로 새롭게 개편한다. '주말에 뭐하지'는 정보 전달 중심의 콘텐츠를 탈피하고 생동감 넘치는 주말 부산의 현장과 프로그램들을 다채롭게 소개할 계획이다. 진행자로 신규 발탁된 이수민 리포터가 부산의 문화·축제·공연 등 현장을

김희태/기자

장재현/기자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결연의회. 도민이 행복한 희망 경북! 경상북도의회가 만들어 갑니다. 조례 제정, 정책대안 제시, 예산안 심의, 집행부 견제·감시. 도민 행복.



### 한덕수 국무총리, 5대 병원장 만나 의료현장상황 점검 및 교수전공의 설득 당부

5대 병원 진료 공백 우려 표명, 중증·응급환자 중심 비상진료체계 유지 당부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29일, 5대 병원장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병원장으로서 의대 교수와 전공의가 환자 곁을 지키도록 독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료현장의 어려움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도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5대 병원의 진료 공백이 더 커진다면, 국민들께서 진료 불편을 넘어 심리적으로 큰 불안을 느끼실 수 있다"며,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전날 만난 회기·난치질환연합회 환자분들께서 의대 교수들의 공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병원장들께서 의대 교수들이 환자 곁에 머무르도록 설득해주실 것"을 부탁했다.

정부는 지난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필수의료자원을 위한 재정 중점 투자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하고, 전공의 수련비용을 정부가 책임지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책임보험 공제로 50% 국비지원 등을 적극 추진한다.

한 총리는 "정책당사자인 전공의들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하루빨리 전공의들이 복귀하여 재정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안을 정부와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한 총리는 "정부의 계속되는 노력에도 의료계와 정부 간 대화체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최일선에서 전공의, 교수들과 함께 하고 계신 병원장들께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5대 병원장들은 전공의 공백으로 인해 병원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지원을 요청하면서도,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특히,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우려하며, 하루라도 빨리 상황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병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성지아/기자



### 서울시, 3월 30일 새벽 0시부터 23시까지 광화문일대 교통 단계별 통제

'2024 부활절 퍼레이드' 개최



오는 3월 30일 광화문 일대에서 '2024 부활절 퍼레이드'가 (사)한국교회총연합 주최로 개최된다.

서울시는 '2024 부활절 퍼레이드' 개최에 따라 30일 새벽 0시부터 23시까지 퍼레이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광화문 일대의 도로를 단계별로 통제한다.

올해 '부활절 퍼레이드'는 오는 3월 30일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퍼레이드 및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부활절 퍼레이드'는 서울의 중심부에서 다양한 퍼레이드 행렬을 선보이고 공연단들이 화려한 퍼포먼스를 펼친다. 열린 공간에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세대의 소통·화합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 번 행사 는 퍼 레 이 드 (15:00~17:30), 기념음악회 (18:30~20:30) 순으로 진행되며 광화문광장 일대에서는 각종 체험행사 및 거리공연 등이 진행된다. 또한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부스 등도 마련될 예정이다.

서울시와 2024 부활절 퍼레이드 사무국은 '2024 부활절 퍼레이드' 행사에 어린이부터 노약자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대규모로 참여함에 따라, 안전한 보행을 위해 안전펜스 및 바콘 등으로 안전통제선을 설치하고 안전관리요원 등을 대규모로 배치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특히, 세종대로를 지나는 버스 노선

이 우회 운행하고, 구간 내 시내버스 정류장이 폐쇄됨에 따라 종로로 이동하려는 시민은 인근 정류장에서 하차 후 걸어서 이동하거나 지하철을 이용해야 한다. 시내버스 이용 시 버스정류소 및 차내에 부착된 우회 운행 안내문을 참고해 미리 우회경로를 사전에 확인하여 이동하는 것을 추천한다.

최경주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번 '2024 부활절 퍼레이드'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만큼 참여 인원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통통제 상황을 잘 확인하셔서 이동에 큰 불편함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세종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87만 톤 줄인다

29일 세종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안) 심의·의결

세종특별자치시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여 132만 3,000톤으로 감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환,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흡수원 등 6개 부문별 감축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용패스 도입과 정원도시 조성 등 90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9일 시청 집현실에서 '세종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종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민호 시장과 정상만 민간위원장 등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은 이 자리에서 '세종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안과 '2023년 세종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점검 결과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최종안은 '2050 탄소중립을 향한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지속가능 미래도시'라는 비전 아래 오는 2030년까지 2018년(219만 1,000톤CO2eq) 대비 40%인 86만 8,000톤CO2eq 감축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가 관리하는 부문은 ▲전환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흡수원 등 총 6개 부문이며, 90개의 세부 사업이 추진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환 부문에서는 오는 2030년까지 1MW급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1곳 설치, 6-2 생활권 제로에너지타운 조성, 에너지저장형 그린산업단지 전환 등이 추진된다.

건물 부문에서는 신축 공공건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3등급 수준 시행,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에너지 관

리 최적화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8만 3,000톤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수송 부문에서는 이용패스와 어울링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전기·수소차 지원 및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친환경차 전환, 교통 수요관리로 2030년까지 19만 9,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농축산 부문에서는 저탄소 사료, 양질의 조사료 이용 확대 및 저탄소 가축 사양관리가 추진으로 4만 7,000톤의 온실가스 감축할 계획이다.

폐기물 부문에서는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활동, 재활용센터 운영으로 3만 4,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흡수원 분야에서는 정원 속의 도시 세종을 통한 다각적 탄소흡수원 확대 방안 마련하여 10만 4,000톤의 흡수



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날 확정된 기본계획은 지난해 3월과 5월 두 차례 열린 세종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지난해 8월과 10월에 열린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정책 세미나 등 회의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5차에 걸친 감축 부문별 전문가 자문회의와 지난해 12월 28일과 올해 2월 27일 등 2회에 걸친 시민공청회 의견도 반영됐다.

최민호 시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이용패스, 정원도시 등 세종시만의 특색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탄소중립도시를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로 부터 안전한 미래도시 조성에 시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경근/기자

### 사천해경, 찾아가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 실시

4월 20일, 사천 팔포항·고성 맥전포항 내 실시

사천해양경찰서는 봄 행락철 본격적인 수상 레저활동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사천해경 관내에서 발생한 수상레저 사고는 총 87건으로 이중 73건(83%)이 정비 불량, 운항 주의 등 안전의식 부족으로 인한 단순 사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개인 레저 활동자의 경우 예방 정비 미흡, 기관 정비 불량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사천해경은 수상레저기구 전문 수리업체와 합동으로 "찾아가는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동시에 활동자가 스스로 예방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레저기구 관리 방법, 안전 수칙 안내, 근거리 활동자 자율신고 제·홍보 등 안전관리 캠페인도 진행한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대부분의 수상레저 사고는 사전점검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이번 무상점검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레저 활동 시에는 연료 적재량, 엔진 상태 등 자체 점검을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상점검 서비스는 오는 4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천시 동금동 팔포항, 고성 하일면 맥전포항 내에서 실시하며, 3. 28. ~ 4. 17.까지 사천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에서 사전 예약받는다.

이용준/기자



### 이천시, 개화기 이상기상 대응을 위한 과수 꽃가루은행 운영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 결실안정을 위해 자가 생산량 충분히 확보해야

이천시는 개화기 이상기후로 인한 결실 불량과 꽃가루 수급 불만에 대비하여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과수 꽃가루은행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과수 농가에서는 개화기 저온으로 인해 꽃이 얼어붙는 냉해 피해와 방화곤충 활동 감소로 수정 불량이 발생하면서 고품질 과일 생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는 안정적인 결실을 위해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을 지원하는 꽃가루은행을 4월 19일까지 운영한다.

농가는 꽃봉오리를 가져와 꽃가루은행에서 제공하는 전용 장비를 사용하여 건조한 꽃가루를 채취, 생산한 꽃가루의 발아율 검정 및 사용 후 남은 꽃가루를

전용 냉동고에 보관 장기 저장하여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권혁진 과수연구팀장은 "개화기 저온으로 인한 꽃가루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꽃가루 확보가 필수이며,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해 농가는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장비작동 점검에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범상/기자





# 감개무량 영주

산 뒤에 또 산, 그 뒤에 또 산마루, 눈길이 가는 데까지  
그림보다 더 곱게 겹쳐진 능선들이  
모두 이 무량수전을 향해 마련된 듯 싶어진다

출처: 최순우 저자의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중



영주 부석사

## '역살 한번 잡힙시다' 사건을 파헤치려는 자 연우진 vs 진실을 숨기려는 자 장승조, 숨 막히는 심리전!

'역살 한번 잡힙시다'의 연우진과 장승조가 숨 막히는 심리전을 시작했다. KBS 2TV 월화드라마 '역살 한번 잡힙시다'(연출 이호, 이현경 / 극본 배수영 / 제작 몬스터유니온, 프로덕션H)는 연이어 발생한 살인 사건을 통해 거대한 소용돌이에 빠지는 세 남녀의 이야기를 다룬 멜로 추적 스릴러다.

'역살 한번 잡힙시다'는 집요하게 차은새(한지은 분)의 살인 사건을 추적하는 형사 김태현(연우진 분)으로 인해 끝끝내 설우재(장승조 분)가 차은새와 내연 관계였다는 것이 밝혀지며 파격적인 반전을 선사했다. 점점 미궁으로 향하는 진실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는 두 남자를 통해 사건의 쟁점들을 짚어 봤다.

◆ 김태현의 날카로운 촉, 흠어진 진실의 퍼즐을 맞추다

은새가 가장 많이 통화한 번호가 우재인 것이 밝혀지자 태현은 우재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태현은 자신의 날 선 추리로 우재를 압박했지만 우재는 은새가 자신의 스토커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취조실 속 이들의 팽팽한 심리전은 시청자들에게 극도의 긴장감을 안겼다.

우재는 잠시 수사망을 벗어났지만 그의 세컨폰에서 은새와 애정 행각이 담긴 동영상 나오자 판도는 다시 뒤집혔다. 이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목걸이가 서정원(김하늘 분)의 것으로 밝혀졌고, 정원까지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됐다.

태현은 우재뿐만 아니라 정원 역시 자신에게 숨긴 것이 있다고 생각, 이들 부자를 공범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갔다.

연우진은 열혈 형사 태현과 착붙한 연기로 시청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형사로서의 강단 있는 말투와 자신이 의심하고 있는 지점을 끝까지 물고 늘

어지는 집요함까지. '김태현'이라는 캐릭터를 더욱 입체적으로 그려낸 연우진의 열연에 시청자들은 극에 몰입도를 높였다.

◆ 두 얼굴의 설우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다

결국 우재가 은새와 외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정원과 우재의 관계는 산산조각이 났다. 특히 대대적으로 이들 부부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태현이 은새와 외도했다는 기사가 쏟아졌다. 하지만 우재는 계속해서 차은새 살인 사건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우재의 비밀이 모두 밝혀진 듯 싶었지만 우재 곁에 정원, 은새만이 아닌 또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게 드러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정원과 똑같은 와인색 코트를 입은 여자가 차은새 살인 사건 당일 우재와 함께 리더스팰리스에 왔다는 걸 알아챈 태현은 우재에게 여자의 정체를 말하라며 돌아붙였다.

하지만 우재는 끄떡하지 않고 싸늘한 어투로 살인자는 안 쫓고 영통한 곳이나 뒤지는 꼴이 우습다며 태현을 향해 비아냥댔다.

우재는 정원에겐 순애보 남편이지만 자신을 의심하는 태현과 자신을 협박하려 찾아온 차금새(고건한 분)에게는 살기 가득한 얼굴로 경고를 날렸다.

이런 우재의 두 얼굴은 지켜보던 이들을 섬뜩하게 만들었다. 공포심을 불



어 일으킬 정도로 설우재에게 몰입한 장승조의 대체 불가능한 표현력은 멜로 추적 스릴러라는 장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긴박한 전개와 흥미진진한 인물들의 관계성을 하나로 잇는 연결고리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가운데 태현과 우재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진짜 진범은 누구인지 호기심을 자극한다. 강렬한 서사 속 연우진과 장승조가 격돌하며 만들어낸 다이내믹한 시너지가 더욱 기다려진다.

KBS 2TV 월화드라마 '역살 한번 잡힙시다'는 오는 4월 1일(월) 밤 10시 10분 5회가 방송된다.

최만식/기자

## '원더풀 월드' 차은우, 돋보이는 '퇴폐' 빌런美! 유일무이한 빌런 캐릭터 완벽 소화!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의 홍수 속에서 MBC '원더풀 월드'의 차은우가 처연함과 광기가 공존하는 빌런의 매력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MBC 금토드라마 '원더풀 월드'(기획 권성창/연출 이승영, 정상희/극본 김지은/제작 삼화네트웍스)가 시청률 고공행진을 기본 좋게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차은우(권선울 역)가 곱상한 외모와 상반되는 강렬한 퇴폐미를 선보이며 호평을 이끌었다.

최근 로맨틱 코미디의 남자 배우들이 달달한 매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차은우가 아름답고도 섬뜩함이 공존하는 빌런 캐릭터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색다른 매력으로 이목을 끌고 있는 것.

지난 7회에서는 선울이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수현(김남주 분)에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첫 만남부터 우연이 아닌 계획의 일부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보는 이들에게 충격을 선사했다.

선울은 수현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던 순간부터 출소까지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고, 수현이 가장 행복해질 때를 기다리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것.

또한 8회에서는 수현이 남편 수호(김강우 분)의 불륜 상대가 유리(임세미 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사랑하는 두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고통에 빠졌다.

이것마저 선울이 설계한 큰 그림이었고,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섬뜩한 미소를 짓는 선울은 보는 이들을 소름 돋게 해 아름답고도 다크한 빌런의 탄생을 알린 바 있다.

이처럼 차은우는 '권선울' 역할을 마치 제 옷처럼 소화하며 뒤돌린 악의 면모와 망가진 내면을 탁월한 눈빛 연기로 표현해 내고 있어 큰 호평을 받고 있

다.

차은우는 극 중 수현을 향한 복수심을 볼태우면서도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어머니마저 사고로 누워있는 아픔을 혼자 버티고 견뎌야 했던 고통의 찰나를 표정 연기에 완벽히 녹였다.

이에 차은우로서 가능한 아름답고도 섬뜩함이 공존하는 캐릭터가 눈과 귀를 사로잡으며 '원더풀 월드'에서만 볼 수 있는 와이드한 매력에 관심이 집중된다.

시청자들은 "권선울 캐릭터 너무 좋아. 이런 방식으로 심장 자극하는 캐릭터 오랜만", "선울이 광기 안에 처연함이 보여서 좋아. 이런 캐릭터 어디에도 없음", "권선울 미친 놈이긴 한데 안아주고 싶어. 불쌍해서 신경 쓰여",

"차은우 이런 모습 생각도 못 했는데 권선울 캐릭터랑 갈수록 찝찝. 이전 차은우 아닌 권선울 생각도 못 하겠어", "차은우 표정 과하지 않는데 도른 선울이 느낌이 딱딱 나서 좋아" 등 권선울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는 차은우를 향해 호평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 다가오는 9회 방송에서는 복수



를 향해 끝없이 달려가고 있는 선울과 모든 것을 알게 된 수현의 정면 대립이 예고된 상황. 선울이 설계한 거대한 파란 속 수현이 어떻게 반응할지 두 사람의 서사에 귀추가 주목된다.

MBC '원더풀 월드'는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직접 처단한 은수현(김남주 분)이 그날에 얽힌 미스터리한 비밀을 파헤쳐 가는 휴먼 미스터리 드라마로 매주 금, 토 밤 9시 50분에 방송되며 디즈니+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최만식/기자

## '수사반장 1958' 대체불가 반박불가, 이동휘의 유일무이 존재감! 첫 스틸 공개!



'수사반장 1958' 이동휘가 독종 형사로 돌아온다.

오는 4월 19일(금) 첫 방송되는 MBC 새 금토드라마 '수사반장 1958'(기획 장재훈, 홍석우/연출 김성훈/극본 김영신/크리에이터 박재범/제작 (주)바른손스튜디오) 측은 29일, 독보적 존재감을 예고한 이동휘의 스틸컷을 공개했다.

한번 물면 놓지 않는 형사계의 '미친개'로 강렬한 변신을 기대케 한다.

'수사반장 1958'은 한국형 수사물의 역사를 쓴 '수사반장' 프리퀄로, 박영한(이제훈 분) 형사가 서울에 부임한 1958년을 배경으로 시작된다.

야만의 시대, 소도둑 검거 전문 박영한 형사가 개성 넘치는 동료 3인방과 한 팀으로 뭉쳐 부패 권력의 비상식을 상식으로 깨부수며 민중을 위한 형사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그린다.

아날로그 수사의 낭만과 유쾌함이 살아있는 레트로 범죄수사극이 젊은 세대에게는 색다른 카타르시스를, 박 반장의 활약을 추억하는 세대에게는 또 다른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다.

청년 박영한과 함께 새로운 전설을 써 내려갈 '김상순' 역은 유일무이의 대체불가한 배우 이동휘가 맡았다.

김상순은 가진 것이라곤 근성과 독기 뿐인 마이웨이 형사로 일명 중남 경찰서의 '미친개'로 통하는 인물.

부정부패로 얼룩진 현실에 분노가 총만하다 못해 지쳐갈 때쯤, 그는 자신과 다른 듯 닮은 별종 형사 박영한을 만나며 형사 인생에 전환점을 맞는다.

그런 가운데 공개된 사진 속, 이동휘는 시니컬한 눈빛과 표정으로 김상순 캐릭터를 완벽하게 구현해 내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특히 세상만사에 무심한 듯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과 달리, 누군가를 향해서 총을 겨누는 진지한 얼굴이 분위기를 압도한다.

그런가 하면 달큰하게 취기 오른 미소로 단골 대포집 강아지 '순남이'를 품에 안은 그의 반전 매력도 눈길을 끈다.

최만식/기자

## 엑소 시우민, KBS2 오디션 'MA1' 단독 MC 확정!

그들 엑소(EXO) 멤버 겸 솔로 아티스트 시우민(XIUMIN)이 'MA1'에 단독 MC로 함께한다.

29일 소속사 INB100(아이앤비100) 측은 "시우민이 KBS 2TV 글로벌 아이돌 데뷔 프로젝트 '메이크 메이트 원'(이하 'MA1')에 단독 MC로 출연한다"라고 밝혔다.

'MA1'은 36명의 평범한 일상 소년들이 아이돌이라는 꿈을 목표로 달려가는 과정을 그리는 보이그룹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시우민은 데뷔 후 처음으로 단독 MC를 맡아 진행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의 든든한 멘토 겸 롤모델로서 다양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시우민은 K-POP 대표 보이그룹 엑소의 멤버이자 솔로 가수, 배우, 만능

엔터테이너로도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무대 위에서는 탄탄한 실력과 독보적인 무대 매너로 팬심을 사로잡고, 무대 아래에서는 진심어린 팬 사랑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 'MA1'에서도 시우민은 아티스트의 면모는 물론, 진정성 있는 공감과 현실적인 조언을 모두 전하며 활약할 예정이다. 시우민의 지원사격에 'MA1'을 향한 기대감이 높아진다.

'MA1' 첫 방송을 앞두고 시우민은 "저 또한 고등학생 3학년 때까지 춤을 아예 춰본 적도 없었던 평범한 일상 소년이었다. 남들보다 늦게 연습생 생활을 했고, 데뷔하기까지의 과정이 얼마



나 힘든지 알기에 36명의 참가자가 'MA1'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싶다. 참가자들이 스스로 꿈을 이뤄나가는 과정에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시우민이 단독 MC를 맡은 KBS 2TV 글로벌 아이돌 데뷔 프로젝트 'MA1'은 오는 5월 중 첫 방송된다.

최만식/기자



## 산소카페 청송에서 "리셋"(Re:set)

"물러가라! 코로나" 청정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 재충전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재선정된 주왕산과 주산지, 세계지질공원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천혜의 신성계곡, 백일홍 만발한 청송의 새로운 랜드마크, 산소카페 청송정원...

산소카페 청송군은 일상에 지친 삶을 재충전하는 생태힐링관광의 대명사입니다.

리셋으로 리프레쉬!  
힐링은 역시 산소카페 청송군입니다.

# 식중독 주의! 끓였던 음식도 보관관리 필요해요



일교차 큰 봄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 발생 많아  
가열 조리해도 식중독 발생할 수 있어, 식품 보관온도 관리 철저 당부

경상북도도는 일교차가 큰 봄철에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특히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리음식 보관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중독 발생이 많은 이유는 낮에는 기온이 높으나 아침과 저녁에는 쌀쌀한 날씨로 음식물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낮고, 야외 활동 증가로 음식을 장시간 상온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은 음식을 제대로 익히지 않았거나 상온에 방치하는 것이 주 원인으로 음식 조리·보관 시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조리 식품의 보관방법과 온도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 균은 열에 강한 아포\*를 만드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끓였던 경우라도 다시 증식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대량으로 조리된 식품의 보관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 아포(spore) :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등의 세균이 고온, 건조 등 생존이 어려운 환경에서 만들어내는 것으로 아포형태로 휴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다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아포에서 깨어나 다시 증식

또한 불철 나들이 할 경우 조리된 도시락은 아이스박스를 이용하여 보관·운반하고, 김밥 등 조리식품은 2시간 이내 섭취해야 한다. 그리고 육류와 수산물, 어패류는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말고 75°C(어패류 85°C)이상에서 1분이상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한다. 식중독은 특정 계절에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구분 사용하기 ▲익혀먹기 ▲세척·소독하기 ▲끓여먹기 ▲보관온도 지키기 등 식중독 예방 6대수칙을 늘 실천하여야 한다. 황영호 복지건강국장 “식중독은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식중독 예방요령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홍보·안내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생활 환경 조성에 더욱더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안전하게 건너고, 대피할 수 있어요.

꿈빛유치원, 교통안전교육 및 화재안전교육 실시

꿈빛유치원은 지난 28일(목), 유아 118명(7학급)을 대상으로 유치원 강당에서 교통안전교육 및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교통안전교육은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과 협력하여 유아들의 올바른 교통생활 습관 형성과 화재 대피 행동요령에 대해 알고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해 계획하였다. 교육은 ‘횡단보도 건너기, 통학버스 안전교육, 안전하게 바퀴 달린 탈것을 타요, 날씨와 보행 안전,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불이 났어요’ 6가지의 주제로 진행됐다. 특별히 횡단보도 건너기, 화재 대피 방법, 몸에 불이 붙었을 때의 대처 방법은 실습해 보며 몸소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만 5세 유아는 “앞으로 더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을 것 같아요.” “불 근처에 가지 않고, 불이 나면 코와 입을 막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김희숙 원장은 “이번 교통안전교육 및 화재안전교육을 통해 유아들의 안전의식을 함양시키고 교통안전 사고와 화재를 스스로 예방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경북교육청, 전국 유일 2명 이상 장애 자녀 가정 지원

2명 이상의 장애아 가정에 연간 150만 원 지원

-임종식 교육감, “한 가정에 2명 이상 장애 학생 가정에 대한 촘촘한 실태 파악과 학생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경북교육청은 도내에 2명 이상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있는 가정에 연간 150만 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경북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한 가정에 2명 이상의 장애 자녀가 있는 가정의 교육 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장애 학생의 사회 적응 능력을 높이고, 가정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한 가정에 도내 공립유·초·중·고.전공과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이 2자녀 이상인 가정으로,

3월 현재 도내에는 339가정이 이에 해당한다. 지원금은 교복·체육복·교재 구매, 진로·문화 체험비, 대회 참가비, 시험 응시료, 목욕비, 이·미용 서비스 이용, 방역물품 구매, 기저귀 구매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방법은 2명 이상의 장애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필요 물품을 직접 구매 후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학교에서 지원 항목을 검토한 후 각 가정에 예산을 지원한다.

만약 학부모가 이러한 방식을 원하지 않거나 직접 물품 구매가 어려운 경우는 학교에서 장애 학생들이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매하여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장애인 시설에 기거하거나 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가정의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임종식 교육감은 “한 가정에 장애 학생이 2명 이상인 장애 학생 가정에 대한 촘촘한 실태 파악과 학생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복지서비스 제공을 위

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학부모와 소통하는 학교 설명회 개최

2024학년도 1학기 풍기중학교 학교설명회

영주 풍기중학교는 지난 29일(금,) 학교 도서관에서 학부모 대상 학교 설명회를 개최했다. 학교 설명회는 학부모의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교육의 한 주체로서 학교 교육 활동 참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되었다. 아울러 학부모 대상 필수교육인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각 부서별 활동 내용에 대한 계획을 소개하며 학부모들에게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 과정을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어서 학부모와 각 학급 담임의 면담을 통해 자녀들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이해와 진로, 진학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



간을 가졌다. 올해 선출된 학부모회장은 자녀들의 학교생활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고, 학교의 교육활동을 이해하는 데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금자/기자

정금자/기자

## 경북교육청, ‘따뜻한 행복학교’ 운영으로 행복 바람 솔솔

전년도 대비 138교가 늘어난 344교 운영, 학교 현장의 호응 높아  
임종식 교육감, “도내 모든 학생이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자신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해 나갈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혀



경북교육청은 도내 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한 2024학년도 ‘따뜻한 행복교육’ 사업 공모 결과, 도내 943교 중 344교가 ‘따뜻한 행복학교’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따뜻한 행복교육’은 학교생활 속에서 행복의 의미를 알아가고 긍정적인 인식 함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북교육청이 2022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이다. 2024년에는 기존 행복 실천학급.행

복교원 교원학습공동체 사업을 폐지하고, 따뜻한 행복학교 운영에 주력하여 학교 단위의 행복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현재의 삶에서 행복을 경험하도록 교육하는 것으로 사업 방향을 설정했다. 특히, 올해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학생의 성장 수준을 고려한 행복 활동 운영, 지역 자원 활용,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운영을 강화한다. 또한, 관점 바꾸기, 감사하기, 목표 세우기,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나누고 베풀기, 용서하기 등의 주제를 활용한 활동을 필치도록 안내해 구체적, 실천적 행복 교육이 자리 잡도록 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따뜻한 행복학교’ 운영을 희망한 초등 148교와 중등 196교 등 총 344교에 학교 규모에 따라 최대 1,3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학생

과 교사 모두가 행복한 학교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따뜻한 행복학교 운영을 통해 도내 많은 학교의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을 느끼며 즐겁게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도내 모든 학생이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자신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해 나갈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윤근수/기자

## “유아들의 안전을 위한 첫 걸음”

2024학년도 첫 재난(화재)대피 훈련 실시



황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지난 27일(수), 유치원 내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한 재난(화재)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유아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실제 상황에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화재대피훈련에는 3, 4, 5세 전체유아가 참여하였으며, 각 반별로 담임교사의 지도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1. 사이렌 소리 울리기: 먼저 사이렌 소리를 울려 화재 발생 상황을 알리고, 모든 유아가 대피 장소로 이동하도록 안내하였다. 2. 대피 장소로 이동: 유아들은 손수

건으로 입을 막은 후 신속하게 대피 장소로 이동했다. 우리 유치원에서 처음 참여하는 3세반 유아는 교사가 옆에서 함께 이동하며 안내하였다. 3. 인원 파악: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 인원을 파악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했다. 4. 마무리: 훈련 종료 후 훈련 내용을 다시 설명하고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원감은 마무리에서 “재난 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평소 꾸준한 훈련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시설인력지원팀의 활동이 행복의성교육을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훈련은 약 2분 만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2024학년도 처음 실시하는 대피 훈련임에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인환 원장은 이번 대피 훈련을 통해 우리 유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형 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타용/기자

윤타용/기자

## 청송교육지원청, 지자체와 함께하는 유보통합 추진 실무 협의회 개최

생애 초기 책임교육, 유보통합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다!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은 지난 29일(금), 소회의실에서 「청송 유보통합 추진 실무 협의회」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지방업무 이관 대비 1차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생애 초기부터 책임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송교육지원청과 청송군청의 보육 및 유아교육, 예산, 조직, 인사 업무 담당 실무자 8명이

로 구성된 「청송 유보통합 추진 실무 협의회」는 업무 관계자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유보통합 업무를 추진하고, 지방 단위 업무 이관을 단계적으로 준비하여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송 지역 영·유아 보육 현황을 파악하고 유보통합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보육업무에 따른 이관 내

용, ▲보육시설 및 관련 기관의 규모와 범위, ▲예산 이관 범위 등 유보통합을 위한 행·재정 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신덕선 교육장은 “유보통합을 통해 현행 이원화 체제로 인한 비효율적 직차를 해소하고, 우리 교육지원과 청송군청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생애 초기부터 책임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유보통합 실천 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윤근수/기자

## 학교시설인력지원팀, 의성북부초등학교 현장지원 나서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학교시설인력지원팀은 지난 29일(금), 의성북부초등학교에서 수목 전정 작업을 실시하였다. 학교시설인력지원팀은 2006년부터 시작되어 의성교육지원청 소속 시설관리를 주축으로 이루어졌으며, 우리 전통의 품앗이 정신을 계승한 자발적인 모임이다. 수목 방제 및 제초 작업, 수목 전정 작업 등 학교 및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이날 작업은 수목 전정 작업을 필요로 하는 의성북부초등학교의 요청에 의해 진행되었다. 학교시설인력지원팀의 권중대 팀장은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학교를 위해 맘 흘릴 수 있어 뿌듯하다.”며 “이번 전정작업을 통해 의성북부초등학교가 보다 쾌적한 환경이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김기형 행정지원과장은 “오늘 하루 귀중한 맘을 흘린 학교시설인력지원팀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학교시설인력지원팀의 활동이 행복의성교육을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정금자/기자



## ‘구미교육지원청 Wee센터’ 2024학년도 Wee프로젝트 협의회 및 전달 연수 실시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은 지난 29일(금), 새마을운동테마공원 글로벌관 다목적홀에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상담업무담당자 102명을 대상으로 '2024 학년도 Wee 프로젝트의 발전 및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전달연수 및 협의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코로나 이후 변화한 학

교장면에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2024학년도 Wee센터 주요 업무 추진 내용을 안내하고, 학업중단속려제 운영지침 활용 연수가 이루어졌다. 학업중단속려제 운영지침 연수는 교내 학업중단 위기징후의 발견과 학업중단 위기 사례별 개입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구미Wee센터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안내했다. Wee프로젝트 협의회를 통해 관내 Wee클래스 간, Wee클래스와 Wee센터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하였고, 학교급 별로 구역을 구성하였다. Wee프로젝트 협의회는 동료 수퍼비전과 Wee클래스 우수 운영사례 공유로 Wee프로젝트 내실화 및 상담 서비스

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김동현/기자



정금자/기자

KUMHO Waterpolis  
금호워터폴리스

# 금호워터폴리스



■ 상업, 근생, 지원, 단독주택, 주차장용지 수의계약 공급 예정



■ 일반상업, 준주거시설용지 수의계약 공급 중

안심뉴타운  
ANSIM NEWTOWN

# ANSIM NEW TOWN

대구도시개발공사 분양문의 053) 350-0300